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김규륜·홍석훈·조원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김규륜·홍석훈·조원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6년 통일예측시계

(통일예측시계(Unification Clock) 운영개발(3/5년차)) KINU 연구총서 16-21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두일디자인(02-2285-0936)

ISBN 978-89-8479-865-6 93340

남북 관계, 남북 통일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32671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16년 통일예측시계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ix

I. 서론 | 김규륜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1부: 통일예측시계

II. 연구방법론 | 홍석훈 7

1. 통일시계의 설계 9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 설문 17

3. 2016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3

III. 2016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 조원빈 31

1. 통일예측시계 33

2. 통일요인 설문조사 47

3. 계량분석 103

2부: 통일예측시계의 대안 모색

| | |
|-------------------------------------------|------------|
| IV. 통일관련 주요 사안의 전망과 분석 홍우택 | 111 |
| 1. 분석방법 | 114 |
| 2. 통일관련 사안 전망 | 117 |
| 3. 분석결과와의 함의 | 137 |
| V. 결론: 종합평가 및 시사점 김규륜 | 139 |
| 참고문헌 | 143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5 |

표·그림목차

| | | |
|---------|-----------------------------------------------|--------|
| 표 II-1 | 2009~2016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개요 | 26 |
| 표 II-2 | 2009~2016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 27, 34 |
| 표 III-1 |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정치분야 상관관계 | 54 |
| 표 III-2 |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경제분야 상관관계 | 62 |
| 표 III-3 |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사회분야 상관관계 | 69 |
| 표 III-4 | 통일 유형 점수와 군사분야 상관관계 | 78 |
| 표 III-5 | 통일 유형 점수와 남한의 역량 상관관계 | 90 |
| 표 III-6 | 통일 유형 점수와 국제관계분야 상관관계 | 101 |
| 표 III-7 | 2016년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 | 103 |
| 표 III-8 | 2016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 | 105 |
| 그림 II-1 | 델파이 기법의 절차 | 13 |
| 그림 II-2 | 지구종말시계 1947~2015년 | 14 |
| 그림 II-3 | 2016년 환경위기시계 | 15 |
| 그림 II-4 | 통일예측시계 설문문항 | 21 |
| 그림 IV-1 | 북한의 급변사태 이슈 연속선(Issue Continuum) | 118 |
| 그림 IV-2 | 북한 급변사태의 정치적 지형도 | 121 |
| 그림 IV-3 | 북한 급변사태 전망 결과 | 123 |
| 그림 IV-4 | 몬테카를로 분석결과: 북한 이해당사자들 | 125 |



2016년 통일예측시계

| | | |
|---------|--------------------------------------------------|-----|
| 그림 IV-5 |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이슈 연속선 (Issue Continuum) | 129 |
| 그림 IV-6 |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초기 정치 지형도 | 131 |
| 그림 IV-7 |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전망 결과 | 134 |
| 그림 IV-8 |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최종 위치 | 135 |
| 그림 IV-9 |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을 움직인 이해당사자들 | 136 |

201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단시점 즈음해서 한반도에 태어난 세대가 이미 고령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폐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통일이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통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이룩될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시기 및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현재적인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을 동시에 포함해야 하는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가능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09년 이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통일이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깝게 또는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통일시계를 만들어 매년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왔다. 2016년의 한반도 통일환경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로 파악되는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의 호전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여러 방면에서 양자적 내지는 다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통일에 대한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대표되는 호전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은 남한의 국민과 정부의 통일염원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통일시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일시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형식의 축적된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서 추진하였다. 이에 더해서 2016년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시계 측정연구는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집대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에 대한 관점을 수치화된 개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주의환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주제어: 통일예측, 통일시계, 델파이 조사

2016 Unification Clock

Hong, Woo-Taek et al.

2016 marks 70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reminder that the generation born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are now elderly. In a similar context, divided families who live in North and South Korea have also considerably ag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only caused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but also led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starting from the Korean War, or a fratricidal war, until the present day, subsequently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without doubt that the ultimate means to halting the devastating effects of separation and constructing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is unification. If division had occurred as a result of the Korean peoples' intention at a certain point in the past, unification could be realized at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 very salient policy issue given that present efforts will determine the method and timing as well as form of unification. Unification policies which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the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must not only be meticulously carried out, but also incorporate opinions from as many levels of society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promoted in ways that earn the consensus of the Korean people.

Since 2009,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as been publishing an annual research paper on the topic of unification clock to express how close or distant unification is, while simultaneously presenting various perspectives of unification that are held by the Korean people. The unification environment in 2016 can be described as being very dark. In other words, North Korea's nuclear test earlier in the year has increased the belligerence of the third-hereditary regime led by Kim Jong-un, a

figure deemed difficult to predict. Furthermore, the policy of accelerat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as been affirmed both domestically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by elev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n the one hand, increased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le on the other hand, impos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essure on various front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although it has put earnest efforts for unification, for example, launching a unification preparation committee, the state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North Korea's increasing belligerence, as seen by it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in effect, neutralized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s yearning for unification. Nevertheless, KINU has conducted research on unification clock to contribute to drafting a future-oriented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people's perspective of unification, which is both the goal and desire of the Korean people. Experts have been questioned, and their answers have been analyzed and accumulated research has been assessed in order to produce the unification clock. In addition, specific issues have been chosen and analyzed, such as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in 2016 as well as neighboring states' cooperation and support for a South Korea-led unifica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ynthesize various perspectives held by researchers and experts. Moreover a numerical visual representation of unification perspectives will bring unific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Korean citizens.

Keywords: Unification Prediction, Unification Clock, Delphi Technique

I. 서론

김규륜(통일연구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1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단시점 즈음해서 한반도에 태어난 세대가 이미 고령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폐해를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통일이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통일은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이룩될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시기 및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현재적인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을 동시에 포함해야 하는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가능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09년 이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통일이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깝게 또는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통일시계를 만들어 매년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왔다. 2016년의 한반도 통일환경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을 실시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로 파악되는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의 호전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여러 방면에서 양자적 내지는 다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통일에 대한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대표되는 호전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은 남한의 국민과 정부의 통일염원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하고자 통일시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일시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형식의 축적된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서 추진하였다. 이에 더해서 2016년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시계 측정연구는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집대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에 대한 관점을 수치화된 개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주의환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1부 •

통일예측시계



II. 연구방법론

홍석훈(통일연구원)



1. 통일시계의 설계¹⁾

한반도 정세는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맞물려 그 불확실성을 내재해왔으며, 보다 정확한 정세 판단은 학문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을 통하여 통일예측시계의 연구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먼저 계량적 방법으로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계열분석, 인과모형,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며, 퓨처스 휠, 시나리오 기법, 교차영향분석, 환경스캐닝과 같은 방법들 혹은 델파이 기법과 같은 접근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전문가의 예언이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의 역사를 사후에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에 체계적인 논리와 구조를 통해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예언은 일시적인 우연이나 우발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통주관적인 시각에서 현상이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현상의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어떤 방향이나 구조적 동인에 의해 작동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²⁾

본 연구는 다양한 예측기법을 검토하여 지금과 같은 통일예측시계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여기서 정성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통일환경요인으로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접근방법은 한계가

¹⁾ 본 통일예측시계는 다년차 과제로서 『2015년 통일예측시계』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방법론의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다년간 연속과제이기에 안정적인 방법론이 담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지수 분석을 위하여 ‘II. 연구방법론’의 내용은 불가피하게 지난 조사의 연구방법론을 반복·보완하였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²⁾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7.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다 용이하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시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계의 메타포(metaphor)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다만 지구종말시계와는 달리 통일시계의 최종시점이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시계의 외형(facade)은 총 12시 기준의 시계 모양과 동일하게 환경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환경위기사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를 그대로 적용하였다.³⁾

통일예측시계는 크게 '합의형'과 '한국주도형'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에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통일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의 다양한 유형을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개념화가 가능한 최소한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념화를 위해 기존 통일의 유형 연구에서 합의형, 한국주도형, 전쟁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이라는 2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상정하며, 2개의 통일 유형은 다시 전반적인 통일환경을 제시하는 총괄시계와 통일의 다양한 분야를 감지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환경의 5개 하위분야 시계로 나누었다. 즉, 통일예측시계는 2개 유형과 6개 분야로 구획된 총 12개의 시계로 구성된다.

³⁾ 본 통일예측시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델파이 기법과 메타포로서의 지구종말시계 및 외형으로의 환경위기사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009년부터 2011년 및 2014년, 2015년 조사과정에서 사용되어 온 방법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8.

⁴⁾ "본 통일예측시계에서 도입한 '한국주도형' 시계는 이전 연구에서 '흡수형' 시계를 대체한 용어이다. '흡수형'이란 용어 대신 '한국주도형'으로 변경하였고, 그 의미를 보충하자면, 대한민국 헌법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기초하여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모델을 상정한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8.

델파이 기법은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집단적인 시각과 정보를 조합하여 조직화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지리적으로 이격된 전문가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동일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명칭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서 행해진 델포이 신탁이며, 1944년 최초의 시도는 헨리 아놀드(Henry H. Arnold) 사령관이 미 육군항공대에 미래 기술의 발전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한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엄격한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였던 정량모형이나 이론적 접근과 같은 전통적 접근법이 통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때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당시 Project RAND)의 달키(Norman Dalkey)와 헬머(Olaf Helmer)”가 델파이 기법을 제안하였다.⁵⁾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특정분야에 집단지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델파이 기법의 최고 장점이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익명성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판단을 제안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델파이 기법은 단점도 있다. 반복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까닭에 시간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피조사자는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순환과정에서 편승효과(bandwagon effect)가 나타날 수 있으며, 피조사자의 중립적 결정을 향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델파이 기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기법보다 뛰어난 예측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작된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 개발분야, 교육분야 등에서 매우 유용한 미래예측기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비구조적 예측방법의 오차율이 20%인 상황에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 고작 3~4%의

⁵⁾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9; Norman Dalkey and Olaf Helmer,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vol. 9, no. 3 (1963), pp. 458~467.

| |
|-----|
| I |
| II |
| III |
| IV |
| V |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였다.⁶⁾

델파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⁷⁾

- (1)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지속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자(moderator)들이 델파이 전 과정을 파악하여 탄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다.
- (2) 반복(Iteration): 수회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이 그들의 답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3) 통제된 피드백(Controlled feedback):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 (4) 익명성(Anonymity): 참가자들에게 그룹의견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델파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⁸⁾

1단계: 먼저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2단계: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성격, 델파이 주제는 정리하고,
- 관리팀은 결과 종합·분석, 델파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3단계: - 전문가들은 설문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실현시기를 예측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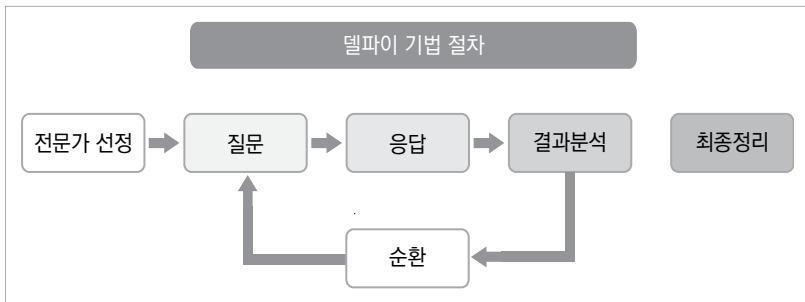
⁶⁾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7; Shankar Basu and Roger G. Schroeder, "Incorporating Judgements in Sales Forecasts: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at American Hoist & Derrick," *Interfaces*, vol. 7, no. 3 (1977), p. 13.

⁷⁾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7;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8.

⁸⁾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7; 박영호·김형기, 『2014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10~11.

- 관리팀은 예측된 결과 집계,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한다.
- 4단계: - 전문가들은 예측 시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 관리팀은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응답을 분석한다. 합의되지 못한 의견도 정리한다.
 - 적절한 수준으로 응답결과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질문을 반복한다.
- 5단계: - 전문가들은 수정된 의견이 포함된 설문을 받아 응답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관리팀은 제4라운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주제에 대한 예측시기를 발표한다.

그림 II-1 ▶ 델파이 기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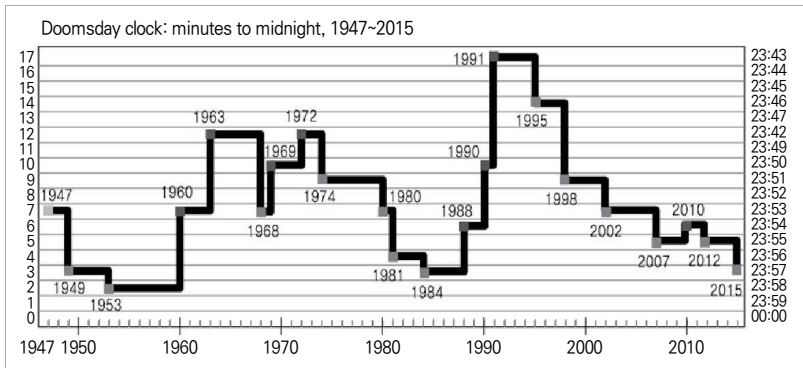


출처: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2 인용.

2014년 통일예측시계는 이러한 델파이 기법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였으나, 2016년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 등의 제한 등의 이유로 1회에 걸친 조사로 마감하였다.

정리하자면 통일예측시계는, 2개 유형 5개 하위분야의 총 12개로 구성되었고 그 메타포를 지구종말시계에서 구하였으며, 환경위기시계에서 그 외형을 가져왔다. 또한 시나리오 기법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주도형과 합의형이라는 유형을 참조하였다. 구축된 통일시계는 통일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정량지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계라는 상징성과 가독성으로 인해 정책적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⁹⁾

그림 II-2 >> 지구종말시계 1947~2015년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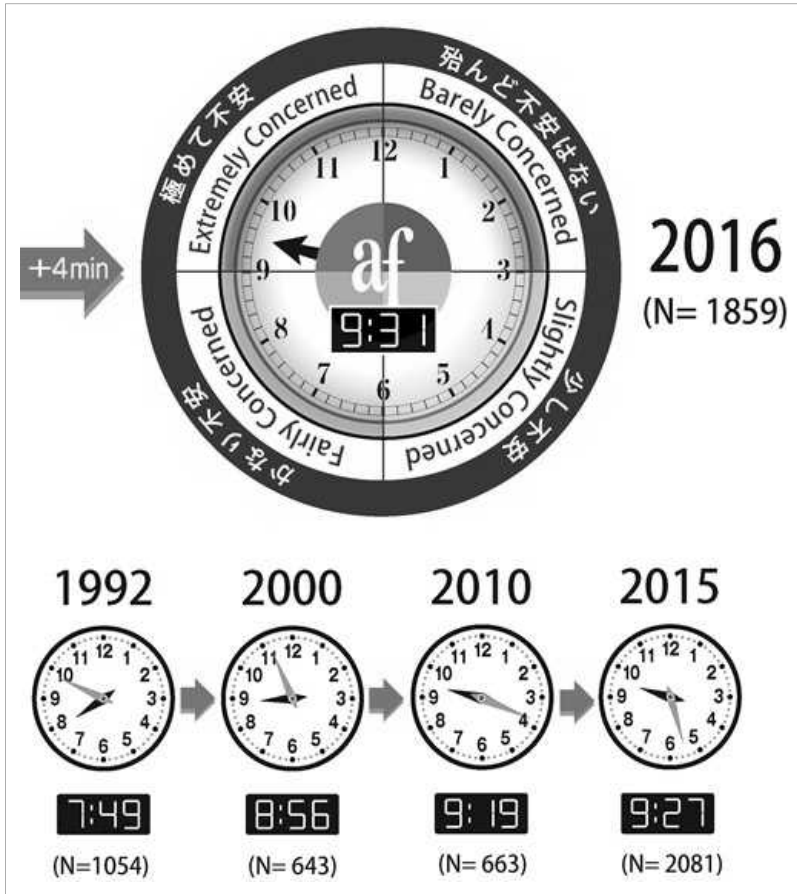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ile:Doomsday_Clock_graph.svg>, (검색일: 2016.9.2.).

⁹⁾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7.

¹⁰⁾ 위의 책, p. 13.

그림 II-3 2016년 환경위기시계



출처: The Environmental Doomsday Clock, <<http://www.af-info.or.jp/en/questionnaire/clock.html>>, (검색일: 2016.9.2.).

지구종말시계는 미국의 맨해튼계획을 추진했던 물리학자들이 원폭 투하의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개발한 상징적 시계로서, 1947년 시카고 대학의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게재된 이래 현재까지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의 동향 및 감축상황 등을 파악하여 분침을 지정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 I
- II
- III
- IV
- V

환경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¹¹⁾ 시계의 최저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1991년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된 당시 23시 43분이 최저점이었으며, 1953년 23시 58분과 1984년 23시 57분으로 각각 지구종말을 경고한 바 있다. 2016년 현재 시각은 작년과 동일한 23시 57분이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미·중 간, 미·러 간 갈등과 함께 북한 4차 핵실험이 위협을 가중시켰으며 기후변화 추세를 변화시킬만한 전 세계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지구 종말인 자정에 불과 3분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한 통일예측시계는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다가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¹²⁾ 자정으로 가정한 지구종말을 통일로 재가정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여건이 통일에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통일예측시계는 환경위기사계에서 그 외형을 도입하였다. 환경위기사계는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Asahi Glass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시계로,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해부터 전 세계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환경시계는 0~3시(거의 불안하지 않음), 3~6시(약간 불안), 6~9시(심각), 9~12시(매우 심각)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시간으로 환경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¹³⁾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최근 조사대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는 208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16년 현재 환경위기사계는 9시 31분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¹⁴⁾

¹¹⁾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p. 12~13.

¹²⁾ 위의 책, p. 13.

¹³⁾ 위의 책, pp. 12~13.

¹⁴⁾ The Environmental Doomsday Clock, <<http://www.af-info.or.jp/en/question>>

통일예측시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통일을 향해 얼마나 가깝게 왔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표현 양식을 위해 환경위기시계가 차용하고 있는 외형과 동일하게 4분위와 12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즉, 12시를 통일시점으로 상정하고 이를 향한 시점을 0~3시(매우 부정적), 3~6시(다소 부정적), 6~9시(다소 긍정적), 9시~12시(매우 긍정적)로 구분하였다. 또한 100점 척도로 설문문항이 구성되며 이를 다시 12시간 단위의 시간으로 계산하였다.¹⁵⁾

2. 통일시계의 유형과 통일요인 설문¹⁶⁾

통일시계는 지구종말시계 및 환경위기시계와 달리 상이하게 12개의 다양한 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2개의 시계는 각각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로 대별된다. 통일은 다양한 궤적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기존의 다양한 통일유형에 대한 연구를 취합한 결과 몇 개의 통일유형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선행연구에서 통일은 합의형—한국주도형—전쟁형, 의도적 한국주도형—의도적 공존형—우발적 한국주도형—우발적 공존형 등으로 구분된 바 있으며,¹⁷⁾ 또한 미 CSIS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평화적 통합, 북한의 몰락, 전쟁으로 구분하였다.¹⁸⁾ 종합적으로 통일은 크게 합의형,¹⁹⁾ 한국주도형, 전쟁

naire/clock.html〉 참조.

¹⁵⁾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15.

¹⁶⁾ 2015년 통일예측시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년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참조.

¹⁷⁾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3;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p. 15~16.

¹⁸⁾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p. 15~16; CSI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A Working Group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형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합의형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유형이다. 한국주도형은 남한정부가 주도하며 평화통일 원칙에 입각한 형태의 통일이다. 마지막으로 전쟁형은 말 그대로 무력충돌로 남북이 통일되는 유형이다.

그 중 유력하고 또 현실성 있는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을 통일에 측시계의 대상으로 상정하였는데, 전쟁형 통일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통일유형이므로 의도적으로 시계의 설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을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괄할 수 있는 2개의 시계로 우선 구성한 것이다. 또한 통일은 다방면의 분야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며, 특히 한반도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부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5개의 하위시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정리하면, 통일시계는 합의형과 한국주도형이라는 2개의 유형에 포괄적 시계 및 5개의 하위분야 시계로 이루어진 12개의 통일시계로 만들어졌다.

시간을 직접 기록할 경우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 12개 시계에 대한 설문은 100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로 제시되었다. 단순히 1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에서 답변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답의 이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통일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통일 그 자체가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한다는 점에서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통일예측시계의 12개 설문이 전문가마다 합의된 상황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의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Security Program, 2002), pp. 3~8.

¹⁹⁾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16.

합의형 통일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라는 설문을 할 수 있다. 이 때 피설문자는 이 질문이 ‘긍정-부정’, ‘가능-불가능’, ‘단기-장기’ 등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질문인지를 혼동할 수 있다. 실제로 통일예측시계 초기 조사에서 일부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판단준거의 혼동을 토로한 바 있으며, 그러한 결과 응답이산성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좀 더 명확한 설문을 위해 문항을 분리한다면 통일시계의 상징적 함의가 상실되고 통일시계의 숫자를 지나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델파이 조사 이후의 통일시계는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시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순서와 형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우선,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를 각각 한 페이지에 병렬하여 직관적으로 해당 유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판단준거를 제시하기 위해 1~25점은 ‘매우 부정적’, 26~50점은 ‘다소 부정적’, 51~75점은 ‘다소 긍정적’, 76~100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구분하였다.²⁰⁾

또한 12개의 통일시계에 대한 설문과는 별도로 통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동시에 설문하였다. 통일요인은 통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뒤에 재차 정리한 것이다. 초기 1,500여 개에 달했던 통일요인은 축소와 유사 항목의 정리 과정을 거쳐 33개 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다시 문항 수정을 통해 현재의 36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북한 정치 분야 관련 문항은 후계체제 구축, 체제 안정성 등 총 6개 문항, 북한경제 관련 문항은 북한의 경제위기, 개혁개방 등 총 4개 문항, 북한사회의 개혁개방과 주민통제 등 총 5개 문항, 남한의 역량 중 통일인식,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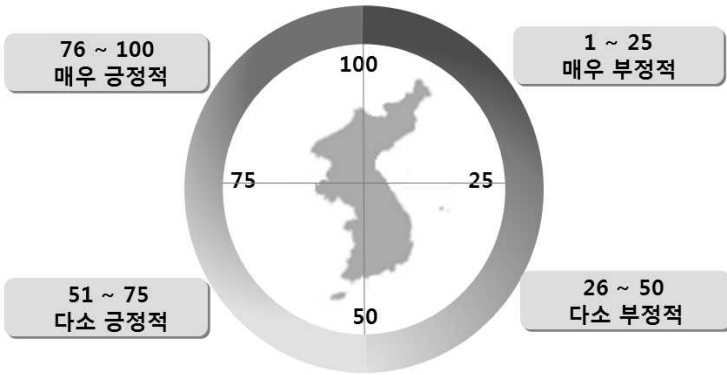
²⁰⁾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19; 박영호·김형기, 『2011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8.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포괄하는 총 8개 문항, 국제관계분야로 주변 4국과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총 7개 문항이 그것이다. 여기서 북한 관련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분야별 문항 수에 대한 결정은 이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통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그 문항의 영향력과 비중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모든 문항은 연구 대상이 국내 최고의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9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척도를 바로잡았다.²¹⁾

²¹⁾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19.

그림 II-4 > 통일에측시계 설문문항

아래 그림을 보시면 1부터 100까지 표시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평화적 남북 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 즉,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합의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1점에서 50점을, 합의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합의형 통일은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출처: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에측시계』, p. 18 인용.

- I
- II
- III
- IV
- V

설문문항은 통일예측시계 구축 당시에 비해 척도정비, 문항의 세련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전체 문항의 전폭적인 수정은 지양하여 통일예측시계가 장기적인 지수(index)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조사와 대동소이하나 다만 김정일 집권 시기 관련 문항의 삭제와 미중관계의 중요성 강조에 대한 내용이 첨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5년간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통일시계는 현재 총 36개 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3개의 개방형 설문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변화가 예견되는 통일환경에 대한 패널의 평가를 파악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일요인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²⁾

본 분석에 수행될 통계기법은 일반적인 분석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다. 우선 시계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해 12개 통일시계의 100점 척도는 다시 '12시' 기준의 시계로 변환²³⁾된다. 또한 중심집중도와 응답이산성 등의 파악을 위해 100점 척도로 구성된 12개 통일예측시계와 36개 통일요인은 일반적인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수행한다. 설문문항과 패널의 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통계측정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2014년의 패널 중 일부의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패널의 일관성 및 신규패널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2015년 통일시계가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패널의 일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통일예측시계 선행 연구를 통해 전문가 패널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이

²²⁾ 3개의 개방형 설문은 향후 1~2년간 예측되는, 가.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 나. 국제 정세의 변화, 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p. 19~20.

²³⁾ 시간환산은 “(720×'100점 척도 통일시계'/100)”의 공식으로 100점 척도를 분으로 환산한 뒤 이를 다시 시:분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20.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²⁴⁾ 12개 시계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조사에서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와 합의형 통일시계라는 2개의 요인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델파이 패널의 응답분포를 더욱 명료하게 구분하고 추적하기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2015년 통일시계 구축과정에서의 합의형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통일요인 설문은 새로운 요인의 추가 없이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각 요인은 기술분석을 통해 응답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년간 축적된 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특이한 요인들에 시계열적 변화가 파악되었고, 마지막으로 통일시계가 통일요인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추적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2016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²⁵⁾

2009년 최초로 설계되어 시작된 통일예측시계는 2011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제2기 통일예측시계 조사가 재기되었다. 2014년 통일예측시계의 전문가 패널은 2011년 조사에 참여한 패널 및 비패널 전문가 80명 중 조사에 동의한 54명과 통일연구원 원내응답자 7명으로 구성되었고, 2015년에는 2014년에 참여한 전문가 수준으로 60명의 패널로 구성되었다. 2015년 조사는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0명 중 52명이

²⁴⁾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p. 20~21.

²⁵⁾ 위의 책, pp. 33~35 참조.

| |
|-----|
| I |
| II |
| III |
| IV |
| V |

응답하였고, 통일예측시계와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1월에서 2015년 9월 초순까지의 변화에 대한 패널의 평가이다. 지난 2015년까지의 조사과정에서 12개 통일시계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며, 한국주도형과 합의형 및 각 5개 하위분야 시계는 모든 조사시기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2016년은 5개년 계획 중 3번째 조사이다. 2016년 조사는 기존에 수행된 델파이 패널의 수준을 유지하되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조사의 패널에 18명의 패널을 추가하였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비교집단 및 국민의식조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1회 조사하였다. 패널은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패널 100명으로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행된 조사결과 78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전문가 패널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지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조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 설문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통일예측시계는 해당분야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라는 문항을 100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100점 척도에서 100은 통일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1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응답시간을 줄여 피설문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항은 크게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로 양분하였으며, 각각 전반적 통일시계,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군사분야, 국제분야의 시계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총 12개의 시계는 각각 합의형 및 한국주도형 6개씩 별도의 페이지에 설문함으로써 다수의 조사항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피설문자의 편의를 위해 4개의 안내구간을 설정하였다. 구간에 대한 응답이산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1~25점은 ‘매우 부정적’, 26~50점은 ‘다소 부정적’, 51~75점은 ‘다소 긍정적’, 76~100점은 ‘매우 긍정적’ 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지난 통일예측시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이산성 문제는 2016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통일요인 설문은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통일의 각 방식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를 분석하고 통일 관련 제반 요인의 달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통일요인은 2009년 조사과정에서 통일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260여 개²⁶⁾로 요약한 뒤, 이를 다시 33개로 축약하여 구성한 2009년 통일요인 설문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2010과 2011년 조사에서 기존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10점에서 9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피설문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문항의 확대를 최소화하였고, 2011년부터는 2010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통일요인을 포함하여 현 36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2016년 조사는 전년도인 2015년 조사와 동일하게 다의적 문항의 분해를 제외하고 추가된 문항은 미중관계(문35) 1개 항목이며, 2014년 김정은 정권이 4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출범함에 따라 과거 후계승계 질문이었던 문항(문1)이 권력승계 안정성 문항으로 대치되었다.²⁷⁾

²⁶⁾ 위의 책, p. 75.

²⁷⁾ 박영호·김지희, “부록-1,2차 전문가델파이조사 통일요인 비교분석 결과,”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207~218.

표 II-1 2009~2016년 통일예측시계 조사개요

| 연도 | 대상 | 기간 | 구조 | 비고 |
|-------------|---------------------|------------------------|-----------------------------------------|------------------------------------|
| 2016 |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70명 | 2016. 6.13.~30. |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78명 응답 |
| 2015 |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0명 | 2015. 9.10.~18. |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52명 응답 |
| 2014 하반기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61명 | 2014. 9.22.~10.13. |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총 1차 조사 상반기 61명 동일 |
| 2014 상반기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61명 | 2014. 4.18.~6.5. |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총 3차 조사 2011년 패널 중 조사동의자 61명 |
| 2011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80명 | 2011. 6.7.~6.27. | 2010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2010년 패널 + 29명 추가 |
| 2010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51명 | 2010. 9.3.~9.15. |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2009년 패널 일부 교체 |
| 2009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51명 | 2009. 10.19.~11.13. |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 설문 개방형문항 | 총 3차 조사 3차 응답 45명 |

출처: 저자 작성.

표 II-2 2009~2016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 | | 통일전반 | | 정치 | | 경제 | |
|------|-------|-------|--------|-------|--------|-------|--------|
| |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 2009 | 시계 환산 | 4:19 | 5:56 | 3:53 | 5:44 | 4:57 | 6:26 |
| 2010 | 시계 환산 | 3:45 | 5:20 | 2:45 | 4:25 | 4:42 | 6:22 |
| 2011 | 시계 환산 | 3:31 | 5:30 | 2:40 | 4:38 | 4:48 | 6:35 |
| 14-상 | 시계 환산 | 3:17 | 5:06 | 2:27 | 4:06 | 4:34 | 6:10 |
| 14-하 | 시계 환산 | 3:47 | 5:06 | 2:56 | 4:12 | 4:58 | 6:05 |
| 2015 | 시계 환산 | 3:48 | 4:59 | 3:04 | 4:01 | 4:59 | 6:00 |
| 2016 | 평균 | 29.26 | 46.22 | 22.65 | 39.50 | 36.64 | 52.45 |
| | 표준편차 | 17.12 | 21.33 | 16.16 | 22.74 | 21.05 | 23.66 |
| | 시계 환산 | 3:31 | 4:34 | 2:44 | 4:45 | 4:24 | 6:18 |
| | 시간 변화 | -0:17 | -0:25 | -0:20 | +0:44 | -0:35 | +0:18 |
| | | 사회 | | 군사 | | 국제관계 | |
| |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 2009 | 시계 환산 | 4:26 | 5:38 | 2:51 | 4:53 | 4:27 | 5:40 |
| 2010 | 시계 환산 | 4:01 | 5:26 | 2:14 | 4:01 | 3:44 | 4:29 |
| 2011 | 시계 환산 | 4:07 | 5:35 | 2:11 | 3:46 | 3:35 | 4:53 |
| 14-상 | 시계 환산 | 4:47 | 5:15 | 2:07 | 3:41 | 3:29 | 4:49 |
| 14-하 | 시계 환산 | 4:09 | 5:23 | 2:27 | 3:35 | 3:53 | 4:51 |
| 2015 | 시계 환산 | 4:19 | 5:28 | 2:20 | 3:32 | 3:49 | 4:44 |
| 2016 | 평균 | 31.86 | 43.63 | 18.83 | 36.17 | 31.94 | 46.35 |
| | 표준편차 | 20.76 | 23.51 | 16.26 | 21.78 | 21.97 | 24.88 |
| | 시계 환산 | 3:50 | 5:15 | 2:16 | 4:21 | 3:50 | 5:34 |
| | 시간 변화 | -0:29 | -0:13 | -0:04 | +0:49 | +0:01 | +0:50 |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과정에서 합의형 통일시계와 한국 주도형 통일시계는 전반적으로,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 4시 19분으로 산정되었지만 이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상반기 3시 17분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에 3시 47분으로 다소 회복하였고 2015년에도 3시 48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합의형 통일시계는 여전히 3시대, 패널이 점진적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경우, 여전히 시간적으로는 멀지만 합의형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 조사기간에 걸쳐 합의형에 비해 한국주도형은 대체로 1시간 20~30분 정도 12시(통일 시간)를 향해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에 비해 다소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5시대를 기록하여 중간점인 6시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계에서 6시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의 중간지점을 의미한다.

조사기간 중의 전반적인 합의형 및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하락추세는 5개 하위분야의 통일시계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정치분야와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전체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낮은 2시대를 기록하였다. 동 분야의 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패널의 판단은 2시 59분보다 낮은 시간대로 보아 가능한 것이다. 5개 하위분야 통일시계 역시 합의형 통일보다 한국주도형 통일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12개 시계 중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를 넘겨 조사시점 당시에 아주 미세하

계 통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로 평가되었다.²⁸⁾ 이 시계는 2009년 6시 26분으로 출발하여 2015년 6시로 기록되었으나, 2016년 18분 늘어난 6시 18분으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였다.

I

II

III

IV

V

²⁸⁾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35.

Ⅲ. 2016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

조원빈(성균관대학교)



1. 통일예측시계

| 2016년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 |
|-----------------------------------------------------------------------------------|-----------------------------------------------------------------------------------|
| 합의형 통일시계 |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  |  |
| 3:31 | 4:34 |
| 2015년 대비 -0:17 | 2015년 대비 -0:25 |

제2기 통일예측시계 조사의 세 번째 연도인 2016년 조사는 2014년, 2015년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패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시계열 지수로 기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예측시계 12개 문항은 전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통일요인도 전년도 36개 문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델파이 패널은 2015년과 비교하여 18명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전문가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기존의 전문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였다. 그중 2016년 조사에 대해 78명이 기한 내 응답하였다. 지난 조사는 2014년 10월 델파이 패널에 대한 최종조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통일예측시계와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는 2015년 9월 중순에서 2016년 6월 중순까지의 변화에 대한 패널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통일예측시계는 2009~2011년 및 2014년, 2015년의 변화에 비해 급격한 시간변화가 없지만 합의형,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모두



후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종합)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31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4시 34분으로 기록되었다. 2015년에 합의형 통일시계의 3시 47분에 비해 불과 1분차이다. 이에 반해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15년 4시 59분보다 오히려 25분 후퇴한 4시 34분으로 기록되었다. 2009년 처음으로 조사한 한국형 통일시계의 시간은 5시 56분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최초로 4시대로 넘어갔다.

총 12개의 시계 중 4개의 시계가 12시(통일)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나 대거 늦춰진 시계가 6개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제관계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이며, 2015년 4시 44분에서 50분으로 진전된 5시 34분으로 2009년 수준인 5시대로 재진입하였다.

표 II-2 2009~2016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 | | 통일전반 | | 정치 | | 경제 | |
|------|-------|-------|--------|-------|--------|-------|--------|
| |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 2009 | 시계 환산 | 4:19 | 5:56 | 3:53 | 5:44 | 4:57 | 6:26 |
| 2010 | 시계 환산 | 3:45 | 5:20 | 2:45 | 4:25 | 4:42 | 6:22 |
| 2011 | 시계 환산 | 3:31 | 5:30 | 2:40 | 4:38 | 4:48 | 6:35 |
| 14-상 | 시계 환산 | 3:17 | 5:06 | 2:27 | 4:06 | 4:34 | 6:10 |
| 14-하 | 시계 환산 | 3:47 | 5:06 | 2:56 | 4:12 | 4:58 | 6:05 |
| 2015 | 시계 환산 | 3:48 | 4:59 | 3:04 | 4:01 | 4:59 | 6:00 |
| 2016 | 평균 | 29.26 | 46.22 | 22.65 | 39.50 | 36.64 | 52.45 |
| | 표준편차 | 17.12 | 21.33 | 16.16 | 22.74 | 21.05 | 23.66 |
| | 시계 환산 | 3:31 | 4:34 | 2:44 | 4:45 | 4:24 | 6:18 |
| | 시간 변화 | -0:17 | -0:25 | -0:20 | +0:44 | -0:35 | +0:18 |

| | | 사회 | | 군사 | | 국제관계 | |
|------|-------|-------|--------|-------|--------|-------|--------|
| |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합의형 | 한국 주도형 |
| 2009 | 시계 환산 | 4:26 | 5:38 | 2:51 | 4:53 | 4:27 | 5:40 |
| 2010 | 시계 환산 | 4:01 | 5:26 | 2:14 | 4:01 | 3:44 | 4:29 |
| 2011 | 시계 환산 | 4:07 | 5:35 | 2:11 | 3:46 | 3:35 | 4:53 |
| 14-상 | 시계 환산 | 4:47 | 5:15 | 2:07 | 3:41 | 3:29 | 4:49 |
| 14-하 | 시계 환산 | 4:09 | 5:23 | 2:27 | 3:35 | 3:53 | 4:51 |
| 2015 | 시계 환산 | 4:19 | 5:28 | 2:20 | 3:32 | 3:49 | 4:44 |
| 2016 | 평균 | 31.86 | 43.63 | 18.83 | 36.17 | 31.94 | 46.35 |
| | 표준편차 | 20.76 | 23.51 | 16.26 | 21.78 | 21.97 | 24.88 |
| | 시계 환산 | 3:50 | 5:15 | 2:16 | 4:21 | 3:50 | 5:34 |
| | 시간 변화 | -0:29 | -0:13 | -0:04 | +0:49 | +0:01 | +0:50 |

출처: 저자 작성.

경제분야 한국형 통일시계는 2015년보다 18분 진전한 6시 18분으로 기록되었다. 6시 정각은 12시 기준 시계의 정중앙 지점이다. 이 분야 시계가 6시대를 넘어서면서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예측시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년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12개 통일시계의 상대적 시간차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합의형 시계 6개는 한국주도형 시계에 비해 통일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전문가 패널은 한국주도형 통일이 합의형 통일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 또한 5개 하위분야 중, 정치 및 군사분야가 통일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반면에 경제 및 사회분야가 통일에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국제관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통일전반보다 1시간 빠르게 움직였다. 이는 국제관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환경이 전반적인 통일환경에서 앞서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2016년 통일예측시계의 조사과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한국 주도형 통일시계 6개 분야 중 4개가 진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국제관계분야가 보합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분야가 후퇴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2016년 통일시계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합의형-한국주도형 통일환경이 후퇴하고 있으며 여전히 12개 통일시계가 중간점인 6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및 군사분야의 시계는 여전히 통일과는 역행하는, 즉 멀리 떨어진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 합의형 통일시계

합의형 통일시계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조성의 결과 나타나는 점진적 통일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합의형 통일시계는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3시 31분을 기준으로 경제는 4시대이며 사회, 정치, 국제관계분야는 3시대와 군사분야는 2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합의형 통일시계의 시간을 결정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와 명백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고위급의 만남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합의형 통일시계는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에 남북관계에서 상호비방이 속출하고 대화가 없는 경우 시계는 뒤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합의형 통일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게 되면 합의형 통일시계를

앞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합의형 통일의 전제가 비정치적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와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의 경우 한반도 주변국 상황에 따라 합의형 또는 한국주도형 통일에 상호작용 및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다만 한반도 주변 4개국이 통일에 호감을 보이면 보일수록 두 가지 유형의 통일은 한층 수월하게 움직일 것으로 간주하였다.

2016년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국제관계를 제외하고 5개 분야가 전반적으로 2015년도 비해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전반에 대한 통일시계가 여전히 3시대에 머물러 있고, 합의형 통일에 중요한 요인인 정치, 군사분야는 올해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2시대에 남아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합의형 통일에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2015년 하반기, 2016년도 상반기에도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정권강화를 위하여 북한지도부의 공포정치, 그리고 ‘핵병진노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당중심의 폐쇄적 정치구도를 강화시켜 왔다. 또한 김정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한국과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군사지휘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당시 김정은은 다중화·소형화된 수소폭탄 개발을 시사하며, 대외의 북한 압박과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 제고와 정권유지를 위하여 당 중심의 폐쇄적 정치구도와 핵개발을 필두로 한 공격적 군사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올해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4차 북한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북한 핵실험의 명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대의 선군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남북한의 '합의형 통일'에 대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특히 북한 3대 세습에 의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행보는 여전히 정치, 군사분야의 시계가 2시대에 머물러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4:19 | 3:45 | 3:31 | 3:17 | 3:47 | 3:48 | 3:31 |
| | -0:34 | -0:14 | -0:14 | +0:30 | +0:01 | -0:17 |

2009년 4시 19분에서 출발하여 2010년 이후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 시계는 2016년까지 3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4년 하반기부터 30분 정도 호전되었다가 2016년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보다 17분 후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폐쇄성의 강화는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를 뒤쳐지게 하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3:53 | 2:45 | 2:40 | 2:27 | 2:56 | 3:04 | 2:44 |
| | -0:08 | -0:05 | -0:13 | +0:29 | +0:08 | -0:20 |

정치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 3시 53분에 출발하여 2시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3시 4분으로 3시대를 회복하였으나, 올해 다시 20분 후퇴하여 2시 44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분야의 합의형 시계를 호전시키는 특별한 동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4:57 | 4:42 | 4:48 | 4:34 | 4:58 | 4:59 | 4:24 |
| | -0:15 | +0:06 | -0:14 | +0:24 | +0:01 | -0:35 |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 통일시계 중 가장 앞선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시계가 나타내듯이 작년에 비해 올해 2016년 조사에서는 35분 후퇴한 4시 24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분야가 여전히 합의형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I
II
III
IV
V

○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4:26 | 4:01 | 4:07 | 3:47 | 4:09 | 4:19 | 3:50 |
| | -0:25 | +0:06 | -0:20 | +0:22 | +0:10 | -0:29 |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26분으로 출발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시 50분으로 후퇴하였다. 사회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경제분야의 합의형 시계 다음으로 합의형 통일에 기대감에 주는 변수이다.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남북의 인적교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한 남북한 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경제적 폐쇄정책은 남북 인적교류를 막고 있다. 이는 사회분야의 합의형 시계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2:51 | 2:14 | 2:11 | 2:07 | 2:27 | 2:20 | 2:16 |
| | -0:37 | -0:03 | -0:04 | +0:20 | -0:07 | -0:04 |

군사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을 시작으로 2시대를 유지하고 있고, 합의형 통일시계분야 중 가장 후퇴한 시간을 보여준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2016년 조사도 여전히 2시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4:27 | 3:44 | 3:35 | 3:29 | 3:53 | 3:49 | 3:50 |
| | +0:17 | -0:09 | -0:06 | +0:24 | -0:04 | +0:01 |

국제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27분으로 출발하여 3시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15년 수준을 지킨 3시 50분으로 기록되었다. 한반도 합의형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합의 통일에 대한 국제관계분야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남한정부체제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을 가정하고 있다. 2010년 통일예측시계 사후분석에서 한국주도형 통일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 경우들은 북한 정권

| |
|-----|
| I |
| II |
| III |
| IV |
| V |

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북한의 정치경제가 안정적인 것은 물론 성장까지 하는 추세를 보이면 한국 주도의 통일시계는 거꾸로 흐르게 된다고 언급하였다.²⁹⁾

2012년 김정은은 공식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5차 핵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포정치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지도층의 잔혹한 숙청을 통해 김정은은 체제 안정화 구축과 함께 북한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북한주민 길들이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핵병진노선’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최근 제5차 핵실험 감행을 서슴지 않으면서, 핵탄두의 소형화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최초 조사에서 5시 56분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4시 34분으로 무려 한 시간이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분야에서 사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진전된 시계양상을 보인다. 경제분야, 국제관계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 군사분야의 순이다.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다른 분야의 시계들 중에서 가장 앞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18분 증가한 6시 18분으로 집계되어 경제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53분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 다시 4시대로(4시 21분) 재진입하였다. 군사분야의 진전은

²⁹⁾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p. 93.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비교적 낙관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의 강한 군사력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통일 시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4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인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5:56 | 5:20 | 5:30 | 5:06 | 5:06 | 4:59 | 4:34 |
| | -0:36 | +0:10 | -0:24 | 0:00 | -0:07 | -0:25 |

전반적인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56분으로 기록된 이후 5시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4시대로 후퇴하였다. 올해 조사에는 전년 대비 25분 후퇴한 4시 34분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인 합의형 시계 모델에 비해 약 1시간 앞선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 주도형 통일시계 역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도의 통일시계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5:44 | 4:25 | 4:38 | 4:06 | 4:12 | 4:01 | 4:45 |
| | -1:19 | +0:13 | -0:32 | +0:06 | -0:11 | +0:44 |

정치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44분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4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2015년에 비해 44분 진전한 4시 45분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보여주는 정치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북한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 경제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6:26 | 6:22 | 6:35 | 6:10 | 6:05 | 6:00 | 6:18 |
| | -0:04 | +0:13 | -0:25 | -0:05 | -0:05 | +0:18 |

경제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유일하게 6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6시 26분으로 측정되었고, 올해 6시 18분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체제 주도의 통일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조사에는 전년 대비 18분 진전되었다.

○ 사회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5:38 | 5:26 | 5:35 | 5:15 | 5:23 | 5:28 | 5:15 |
| | -0:12 | +0:09 | -0:20 | +0:08 | +0:05 | -0:13 |

사회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38분으로 출발하여 5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13분 후퇴한 5시 15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이점은 상대적으로 통일에 가까운 시계를 나타내는 것이 사회분야인데 경제분야가 올해 18분 앞선 것에 비해 사회분야는 13분 후퇴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분야에 비해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4:53 | 4:01 | 3:46 | 3:41 | 3:35 | 3:32 | 4:21 |
| | -0:52 | -0:15 | -0:05 | -0:06 | -0:03 | +0:49 |

군사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2009년 4시 53분으로 기록되었고, 2011년과 2014년 조사에서는 3시대를 유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 대비 49분이 전진한 4시 21분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

I
II
III
IV
V

발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 군사분야의 한국 주도형 통일시계가 앞당겨졌다는 것은 전문가 인식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문가 인식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관계분야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14-상 | 14-하 | 2015년 | 2016년 |
|-----------------------------------------------------------------------------------|-----------------------------------------------------------------------------------|-----------------------------------------------------------------------------------|-----------------------------------------------------------------------------------|-----------------------------------------------------------------------------------|-----------------------------------------------------------------------------------|-----------------------------------------------------------------------------------|
|  |  |  |  |  |  |  |
| 5:40 | 4:29 | 4:53 | 4:49 | 4:51 | 4:44 | 5:34 |
| | -1:11 | +0:24 | -0:04 | +0:02 | -0:07 | +0:50 |

국제관계분야 한국주도형 시계는 2009년 5시대로 출발하여 2010년 이후 4시대를 유지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50분 전진한 5시 34분을 기록하여 경제분야 다음으로 한국주도형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분야의 한국주도형 통일 환경에 국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6시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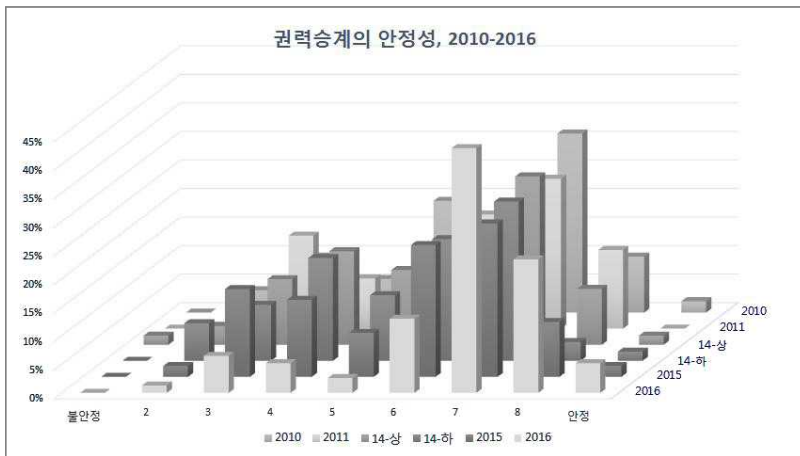
2. 통일요인 설문조사

2016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구성된 36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설문문항은 통일과 외교, 안보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리커트 척도는 9점(1~9점)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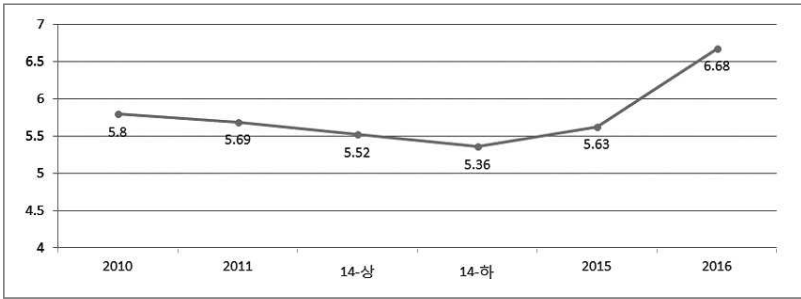
가. 북한 정치분야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북한 정치분야에 대한 설문문항은 여섯 가지이다. 여기에는 권력승계의 안정성(문1)과 북한 체제의 독재성(문2), 북한 체제의 안정성(문3), 내부의 권력갈등(문4),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문5), 개혁적 리더십의 등장가능성(문6)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1. 현재 김정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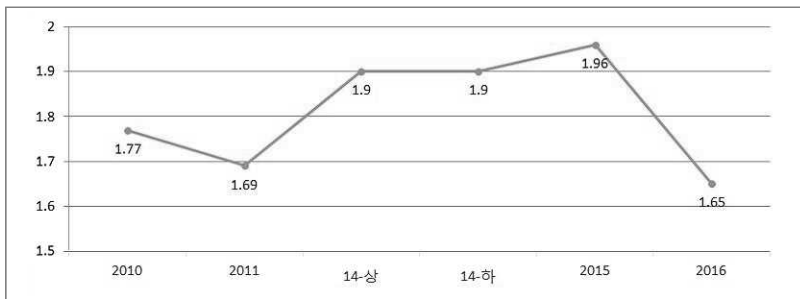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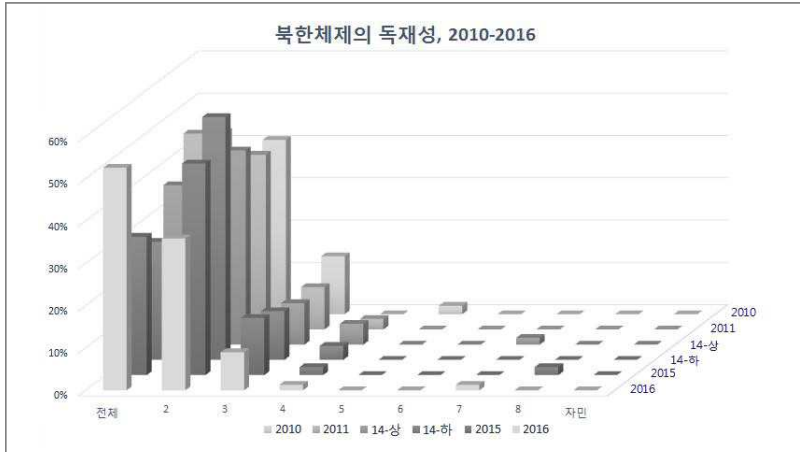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결과 김정은 권력승계 안정성이 예전 조사에 비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2009년 이후 2010년 조사부터 2014년 하반기 조사까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김정은 권력승계 안정성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왔다. 2015년 조사부터 그 추세가 반전되어 전문가들은 권력승계 안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조사 중 가장 높게 (6.68)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78명의 전문가 중 33명(42.3%)이 권력승계 안정성에 9점 만점 중 7점을 주었으며 18명(23.1%)이 8점을 주었다. 2015년 조사에서 패널은 미세하게나마 김정은 권력승계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그 추세는 올해 조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는 초기에 장성택 숙청 등과 같은 과격함이 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들어 제7차 당대회를 열어 당의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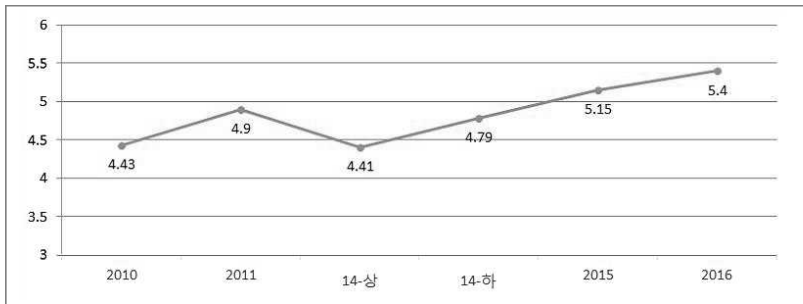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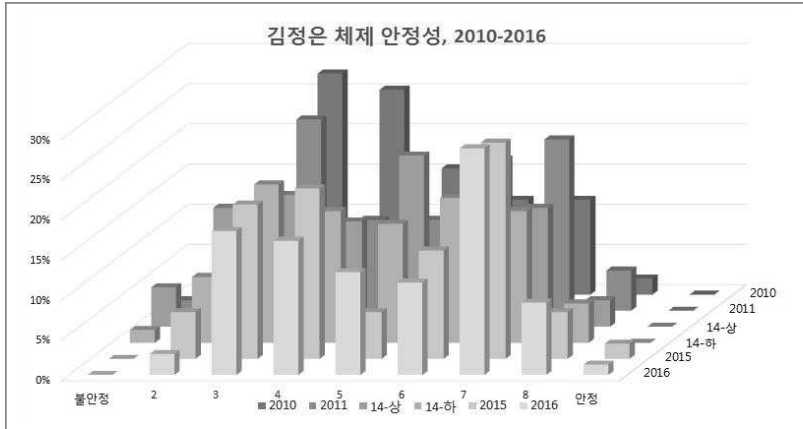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조사결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의 북한체제가 전체주의독재체제(1.65)에 매우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로 북한체제가 점점 더 전체주의독재체제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2.6%)가 '1점'으로 북한체제를 평가했으며 97% 이상의 응답자가 '1~3점'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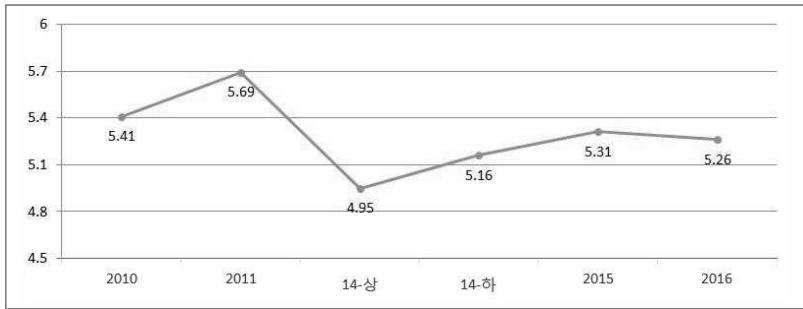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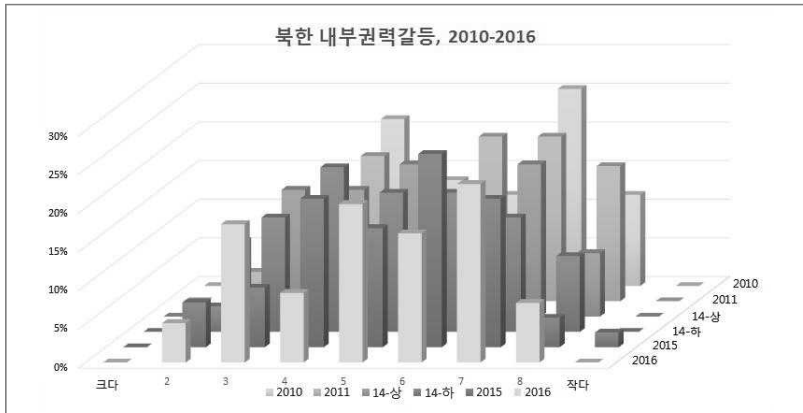
문3. 현재의 북한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4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였다. 78명의 전문가 중 22명(28.2%)이 7점을 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전문가가 응답한 점수는 3점(14명, 17.9%)과 4점(13명, 16.7%)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프를 보면 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 분포가 항상 쌍봉형 분포임을 알 수 있다. 즉, 전문가들 간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 중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집단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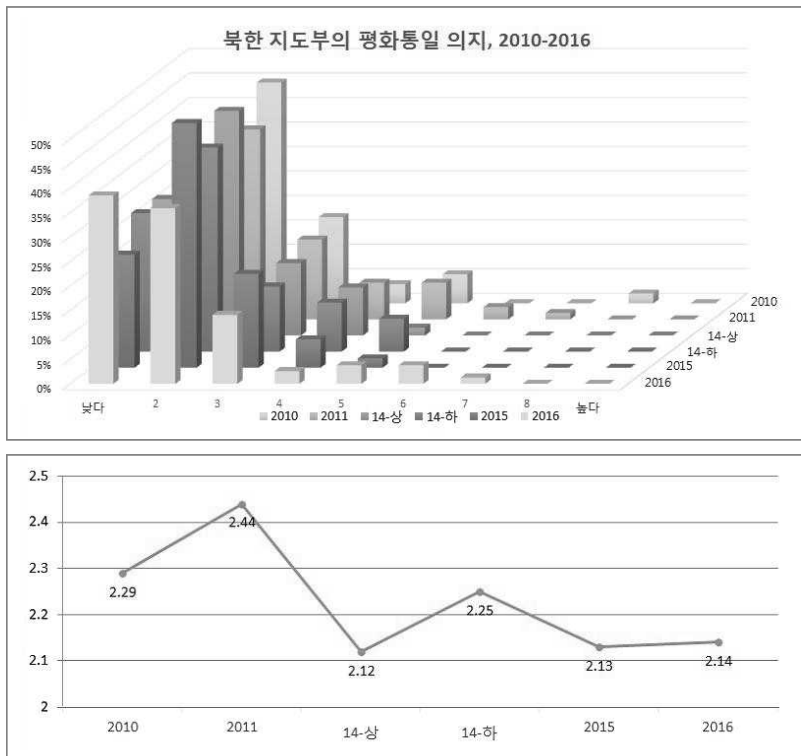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권력갈등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26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의 5.31점보다 낮은 점수이지만 확연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 전문가들 중 77.9%가 북한 내부권력갈등에 대하여 5점 이상을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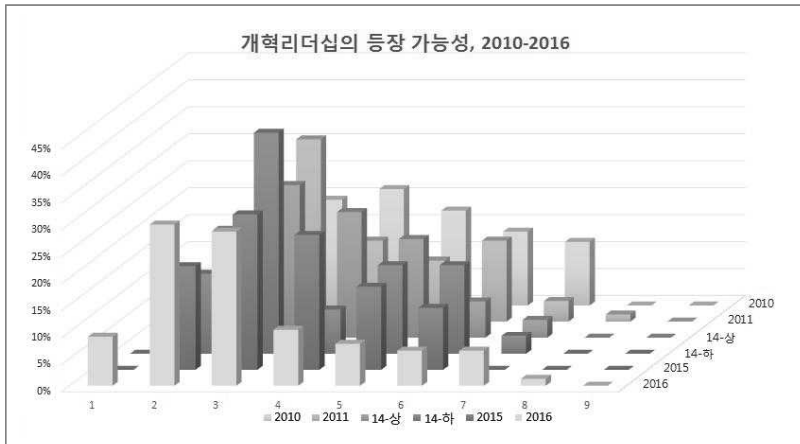
주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권력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용호 공사의 망명을 계기로 북한의 지배층의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엘리트층의 붕괴나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내부의 지배층이나 권력집단 간의 갈등 상황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활동을 하는 북한 지도층이 탈북을 결행하는 것은 그들이 국제사회와 접촉하면서 이루어진 인식의 변화에 따른 부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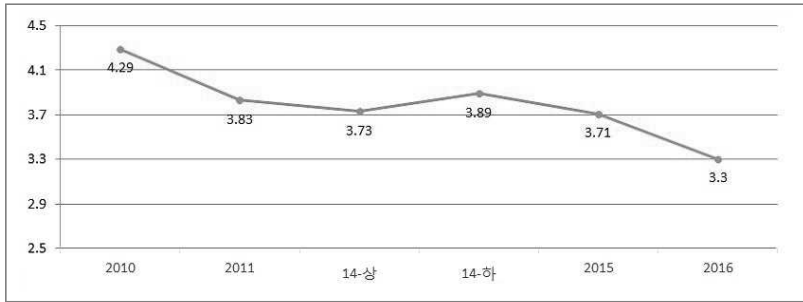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2.14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13점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 중 1점에서 3점 사이로 답한 전문가는 69명(88.5%)으로 응답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30명이 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1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을 한 경우이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은 2점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점차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가 매우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합의형 통일에 대한 기대 수준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6. 북한의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3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동일한 조사를 실행한 동안 가장 낮은 점수이다. 더욱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에 개혁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점수의 분포도 역시 북한에 개혁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점수로 점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2점의 비율이 19.2%에서 30%로 증가했으며 1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도 0%에서 9.1%로 증가했다.

표 III-1 >>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정치분야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1. 권력승계의 안정성 | -0.144 | -0.237* |
| 문2. 북한 체제의 독재성 | -0.016 | -0.059 |
| 문3. 김정은 체제 안정성 | 0.655* | -0.219 |
| 문4. 북한 내부 권력갈등 | -0.202 | -0.310* |
| 문5.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 | 0.050 | -0.172 |
| 문6.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 | 0.272* | 0.186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표 III-1〉은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북한의 정치분야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합의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0.655)과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0.272)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한 그래프가 보여주었듯이 국내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합의형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북한에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에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을 점점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권력승계의 안정성(-0.237)과 북한 내부 권력갈등(-0.310)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낮게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조사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점수는 평균 6.68점이며, 이것은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였다.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북한 내부 권력갈등이 작다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낮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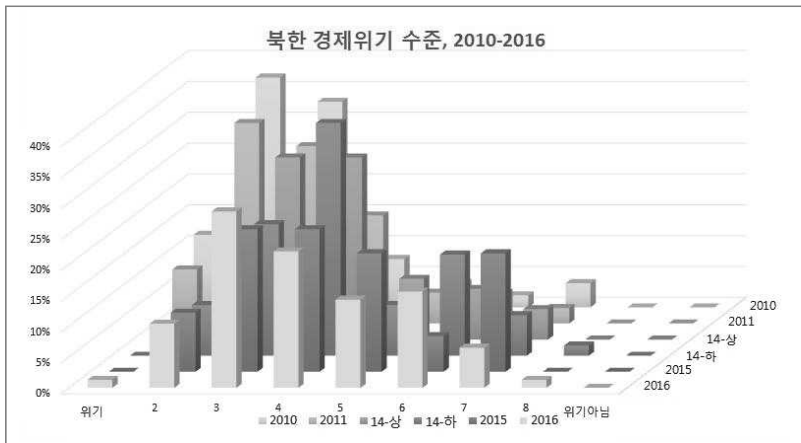
| |
|-----|
| I |
| II |
| III |
| IV |
|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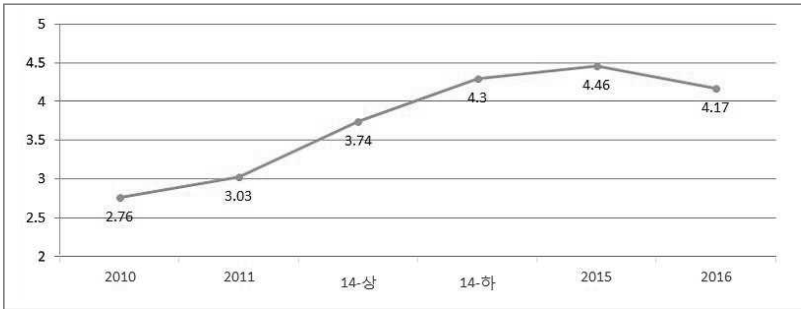
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 내부권력갈등이 높은 상황이 낮은 상황보다 한국주도형 통일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나. 북한 경제분야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북한 경제분야에 대한 설문문항은 네 가지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위기 수준(문11)과 북한 경제체제 특징(문12), 북한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문13),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문20)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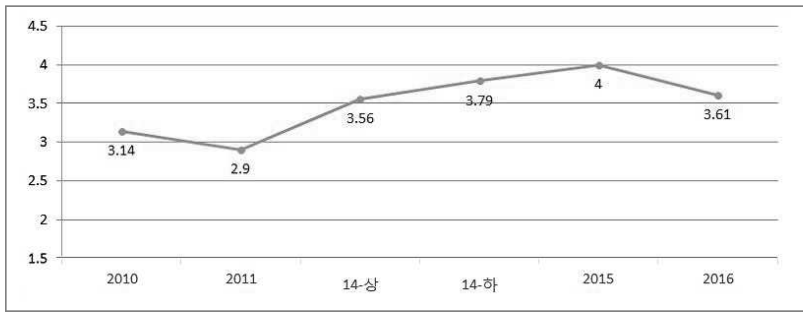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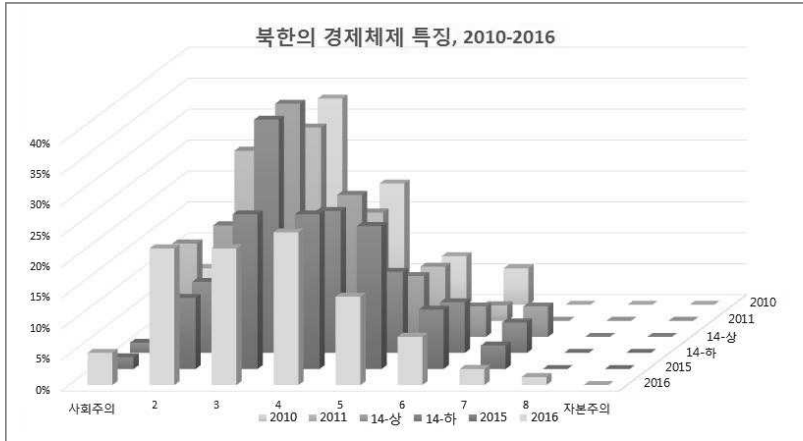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위기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17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15년까지 북한 경제를 위기가 아니라고 응답하는 전문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멈추고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2015년에 비해 북한 경제를 위기라는 방향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증가했다. 주어진 대답 중 북한 경제위기가 비교적 심각하다는 응답인 1~4점을 준 응답자는 62.3%였다. 조사대상의 전문가 중 다수가 북한 경제를 위기 상황이거나 위기 상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화되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난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 현상도 북한 경제위기 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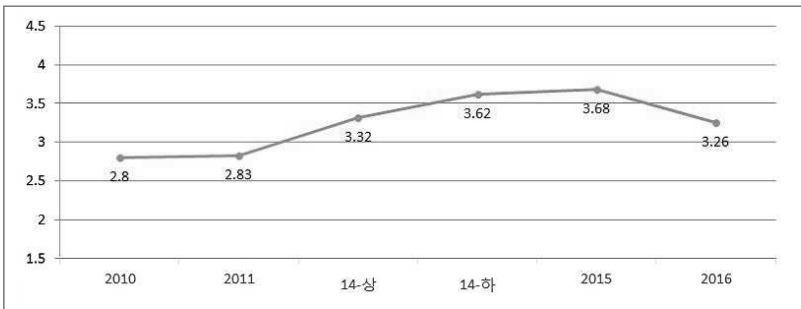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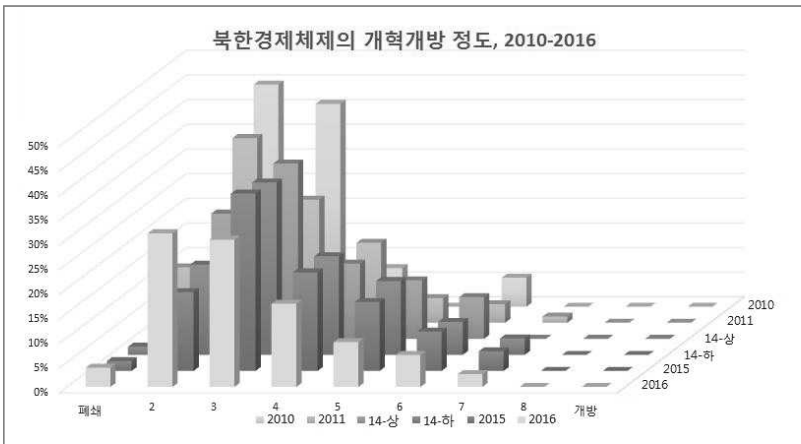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61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2011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2.9점이었으며 그 이후로 북한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추세

와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성격이 좀 더 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와 과거보다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부적 영향이 북한 경제체제에 미치는 효과를 염두에 둔 평가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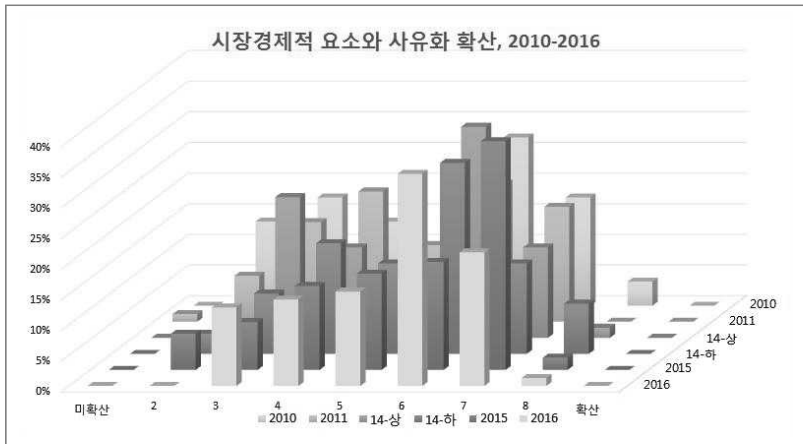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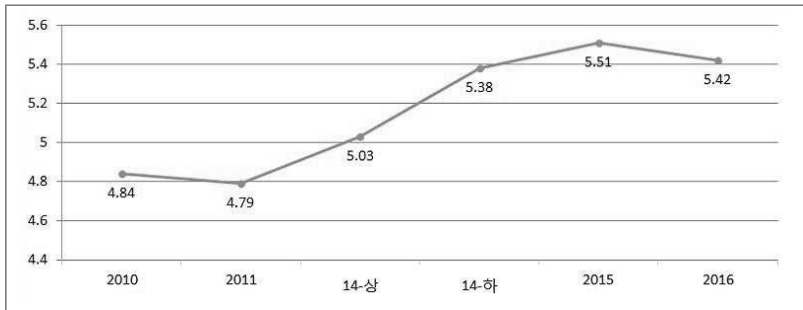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26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개혁개방 정도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개방 정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가 여전히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2011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2.83점이었으며, 그 이후로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서 폐쇄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달리 2016년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체제 개혁개방의 폐쇄적인 측면이 다시 좀 더 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이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대 정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42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비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확산 정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 중 다수가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2011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4.79점이었으며, 그 이후로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의 확산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은 여전히 법률이나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특성이 강하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대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III-2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경제분야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11. 북한 경제위기 수준 | 0.010 | -0.102 |
| 문12.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 | 0.065 | 0.078 |
| 문13. 개혁개방 정도 | 0.028 | -0.152 |
| 문20.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 | -0.024 | 0.189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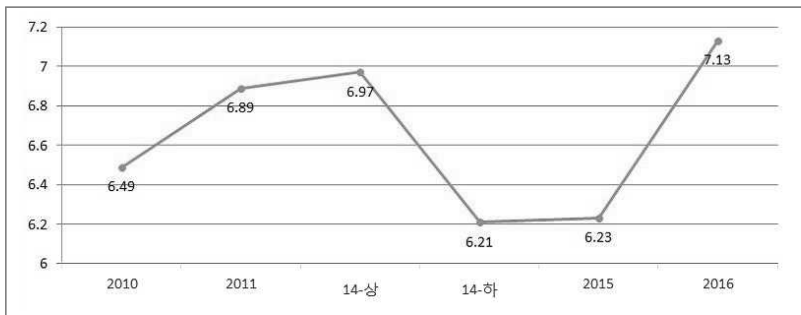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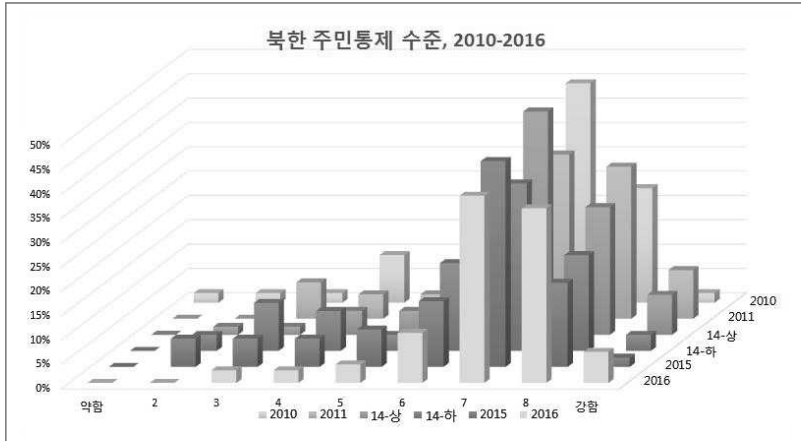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표 III-2〉는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북한의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부여한 합의형 통일점수와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한반도의 통일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는 데는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북한 사회분야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북한 사회분야에 대한 설문문항은 다섯 가지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주민통제(문18)와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문19), 북한주민 체제지지도(문21),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문22),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문23)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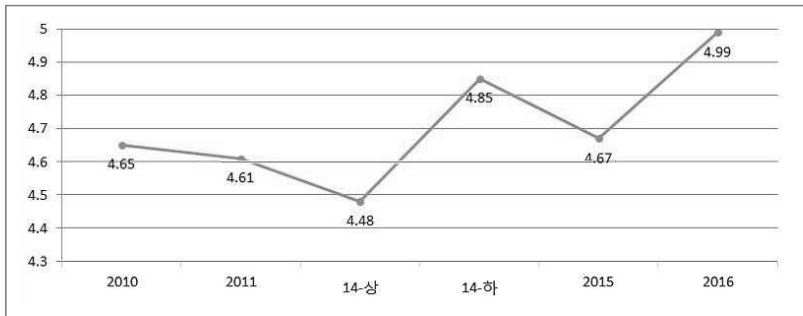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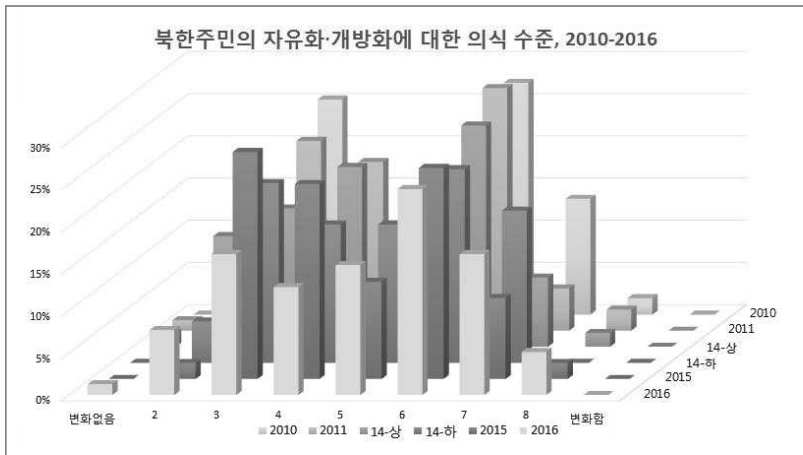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7.13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주민통제 수준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민 통제수준이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다. 2010년 패널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63명(81%)이 주민통제 수준이 매우 강하다는 7점에서 9점을 부여했다. 북한 당국은 모든 방송과 통신 서비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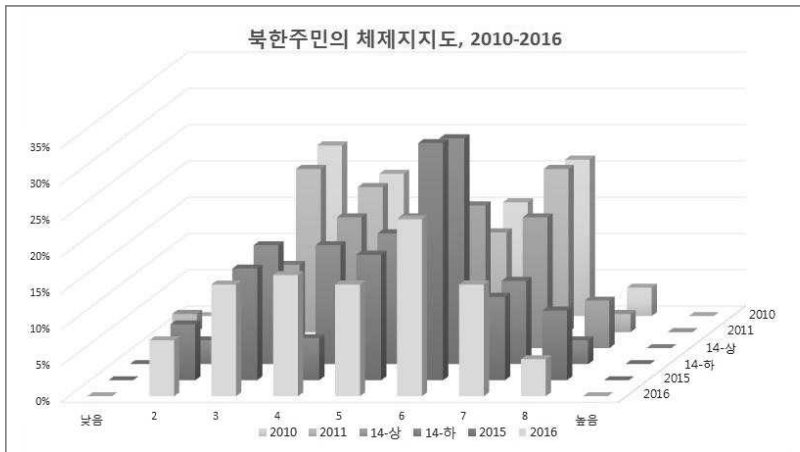
스를 소유하고 그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북한 내 독립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 내부에 비공식적으로 새롭게 공급된 다양한 전기통신 장비, 예를 들어 ‘중국 손 전화’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정은 정부는 공개 처형 등의 수단을 통해 공포정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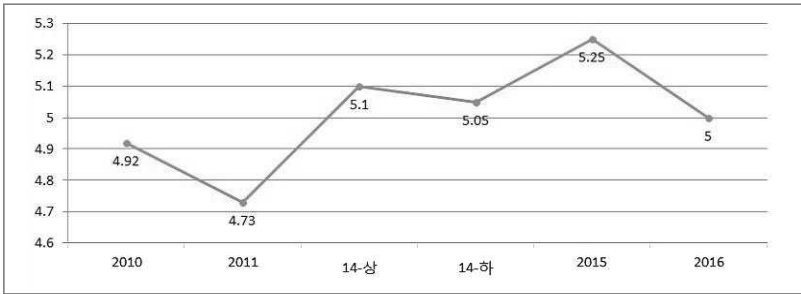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99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2016년 조사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전문가 패널 중 4점 이하의 응답자는 30명(38.5%)이며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36명(46.2%)이었다.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와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장마당 활동 등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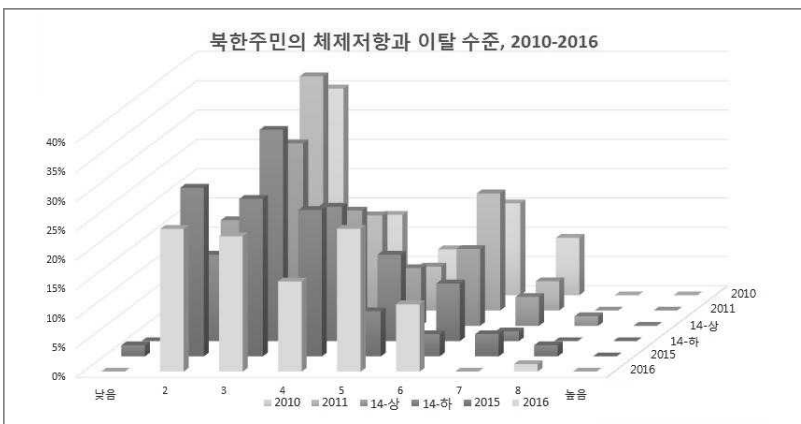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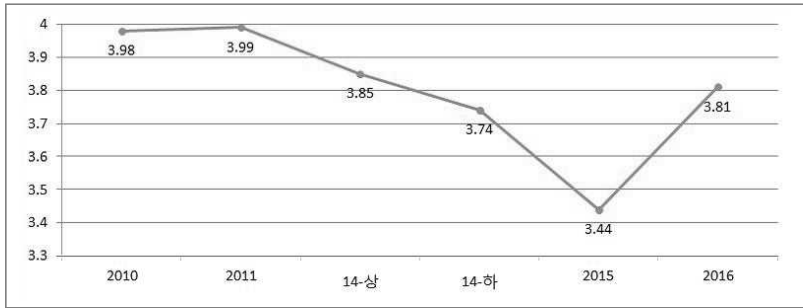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00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가 낮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체제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상반기 패널 조사 이후 전문가들의 평가는 5점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2016년 조사에서는 2015년과 비교해 0.25점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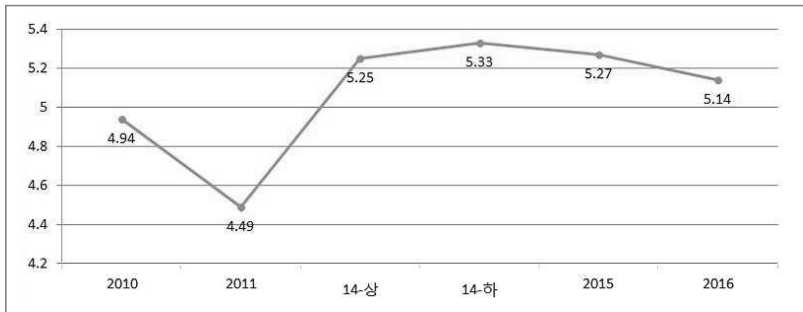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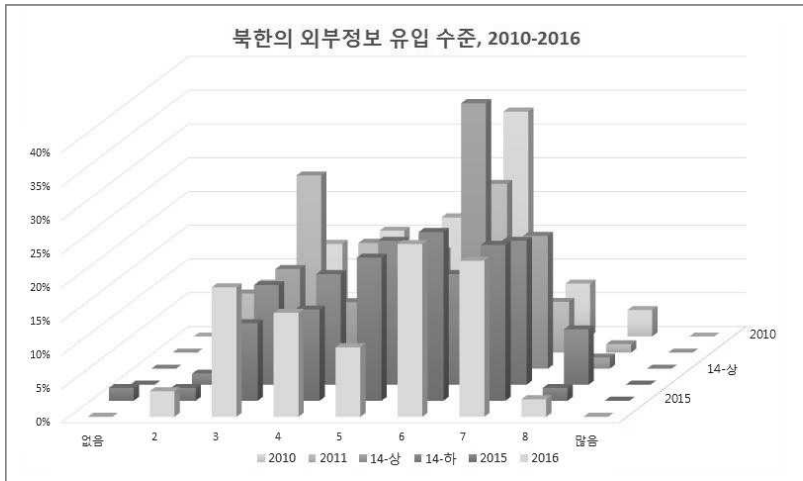
문22. 북한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81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2010년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2015년 조사까지 전문가들은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진다고 평가해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 엘리트의 탈북과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이 공개되면서 북한주민의 이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올해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당과 국가기구를 정비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당·국가 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14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유입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40명(51.3%)이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응

답자는 30명(38.5%)이었다. 2014년 상반기 패널 조사 이래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5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게 되는 방식으로는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일부 북한주민은 텔레비전에서 외국 방송을 보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USB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II-3 통일 유형 점수와 북한 사회분야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18. 북한주민통제 수준 | 0.057 | -0.003 |
| 문19.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 | 0.039 | 0.236* |
| 문21.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 | 0.056 | -0.245* |
| 문22.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 | 0.033 | 0.241* |
| 문23.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 | -0.040 | 0.171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표 III-3〉은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북한의 사회분야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의 사회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부여한 합의형 통일점수와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북한 사회 내부와 주민들의 변화가 한반도의 합의형 통일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하는 데는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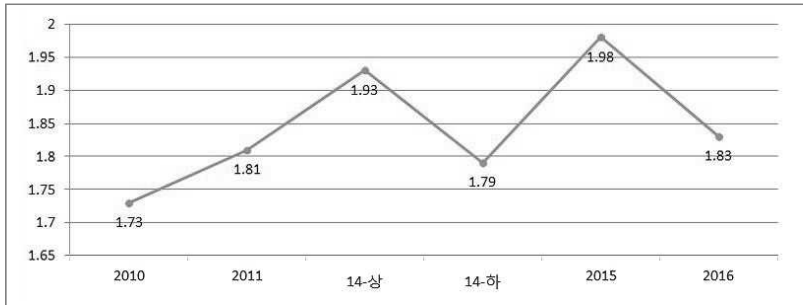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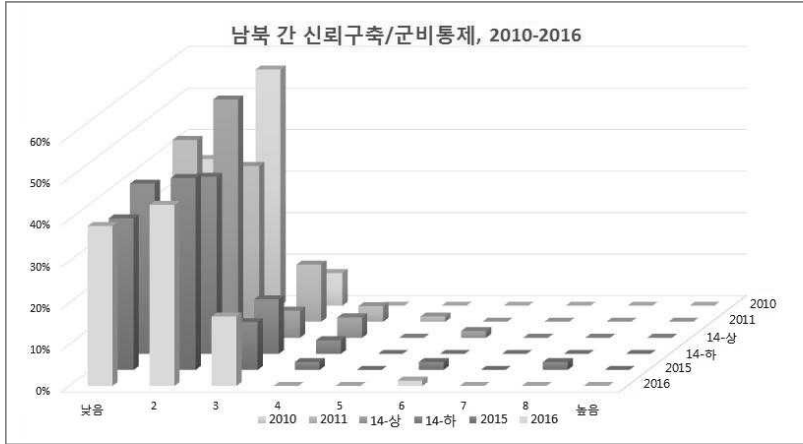
| |
|-----|
| I |
| II |
| III |
| IV |
| V |

(0.236)과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0.245),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0.241)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점수는 평균 4.99이며, 이것은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점수였다. 본 설문문항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가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에서 이들 세 가지 설문문항의 평균 점수는 모두 한국주도형 통일점수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최근에 관찰되는 북한주민의 태도 변화가 합의형 통일과는 무관하지만, 한국주도형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 군사분야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군사분야에 대한 설문문항은 여섯 가지이다. 여기에는 남북 간 신뢰구축/군비통제(문24)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문25),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문26),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문27), 북한의 군사력 수준(문28),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문29)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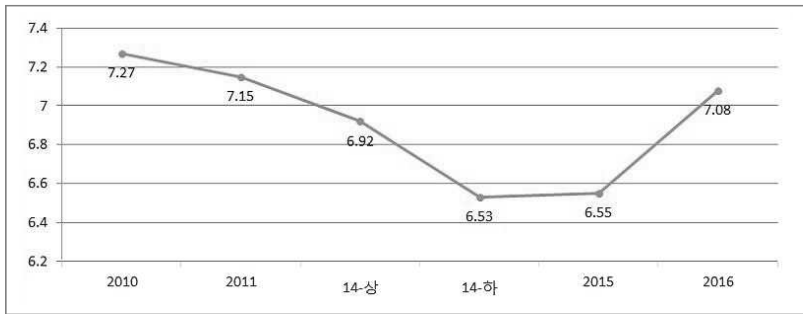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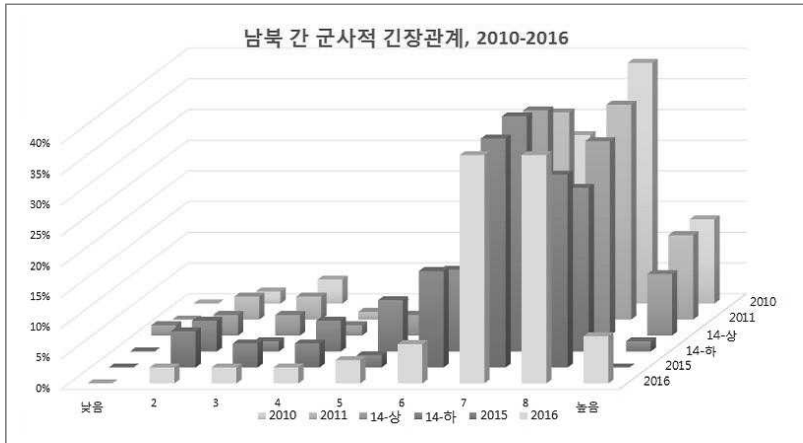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1.83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 I
- II
- III
- IV
- V

중 본 설문문항에 3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77명(98.7%)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1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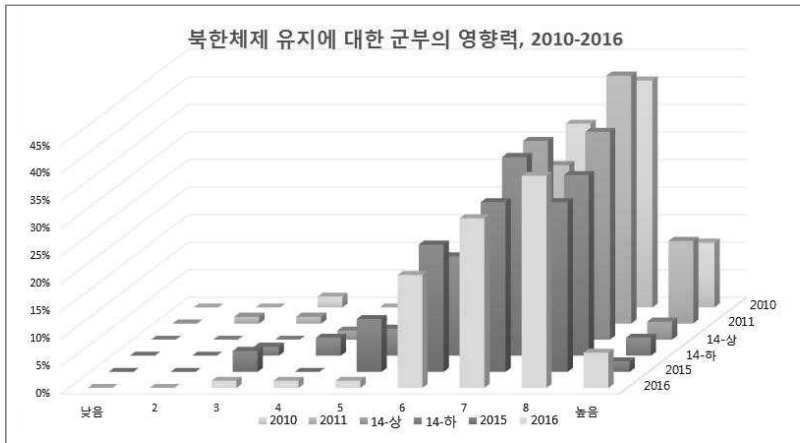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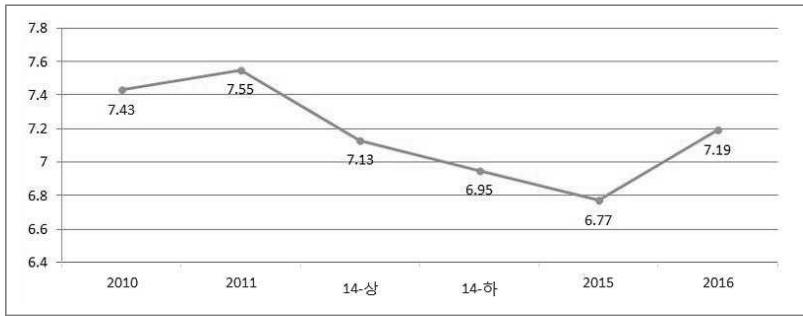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7.08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7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64명(82.1%)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2015년 조사까지 본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낮아져 6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다시 7점대로 상승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발사, 그리고 이에 대응한 남한 내 고고도미사일 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THAAD)의 배치 최종 결정 등 일련의 사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이고 있다.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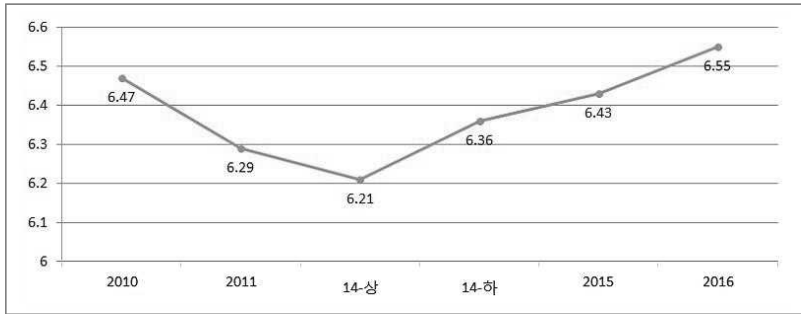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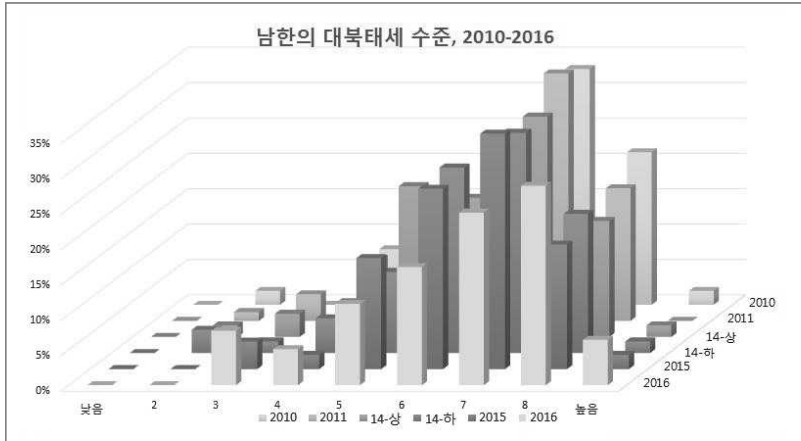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7.19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75명(96.2%)이었다. 2011년 전문가 패널 조사 이래로 2015년 조사까지 본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낮아져 2015년에는 6.77점이었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다시 7점대로 상승했다.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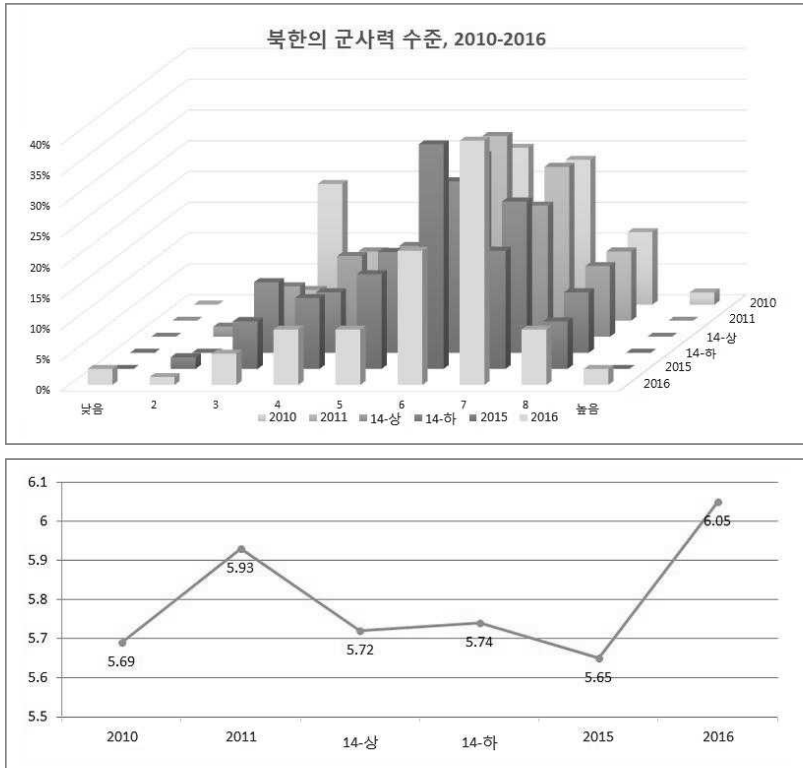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6.55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59명(75.6%)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 I
- II
- III
- IV
- V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2016년 조사까지 본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6점대를 유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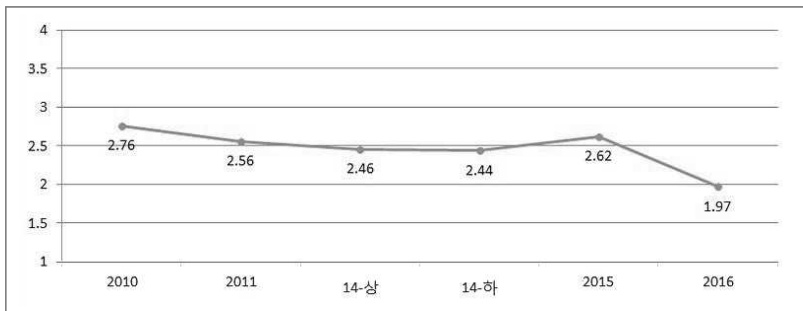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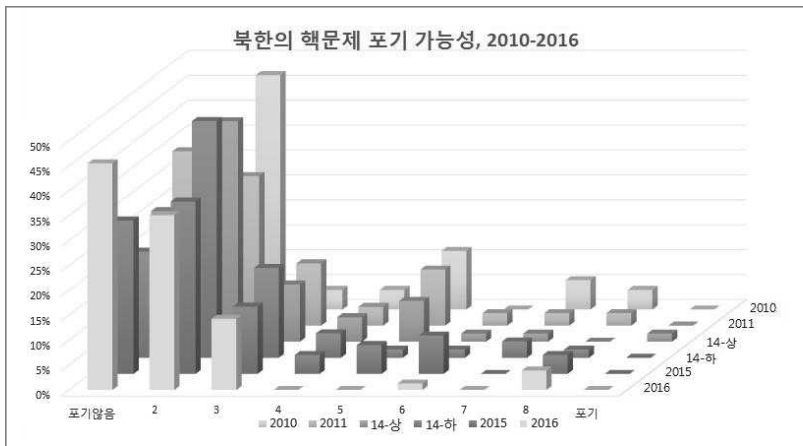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6.05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군사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다소 높다고 평가

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57명(73.1%)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5점대를 유지해 왔으며 다소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6점대로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과 SLBM의 전력화 시도 등 일련의 사건이 반영된 것이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1.97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 대부분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3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73명(94.8%)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1점대로 하락했다.

표 III-4 통일 유형 점수와 군사분야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24. 남북 간 신뢰구축/군비통제 | 0.110 | 0.110 |
| 문25.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 | 0.131 | 0.090 |
| 문26.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 0.110 | 0.278* |
| 문27.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 | 0.016 | -0.067 |
| 문28. 북한의 군사력 수준 | 0.052 | -0.001 |
| 문29.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 | -0.061 | -0.073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표 III-4〉는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남북한 군사분야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남북한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부여한 합의형 통일점수와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남북한 군사분야의 특성 변화가 한반도의 합의형 통일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하는 데는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0.278)에 대한 전문가들의 유일한 평가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 군사분야에 대한 나머지 다섯 가지 설문문항의 점수들은 국내 전문가들이 부여한 합의형 통일점수와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마. 남한의 역량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남한의 역량에 대한 설문문항은 여덟 가지이다. 여기에는 남한국민의 통일의식(문7)과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문9),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문10),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문14),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문15),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문16),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문17) 등이 포함되어 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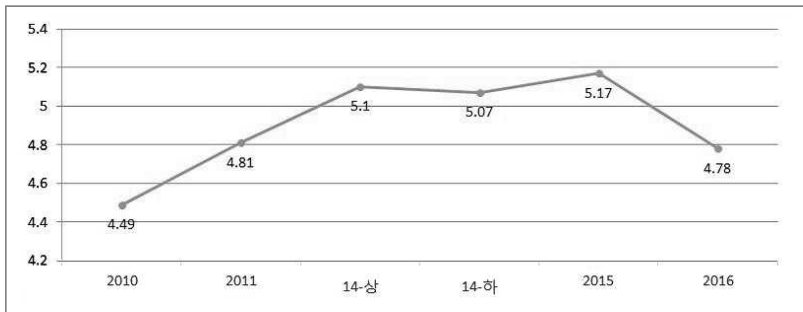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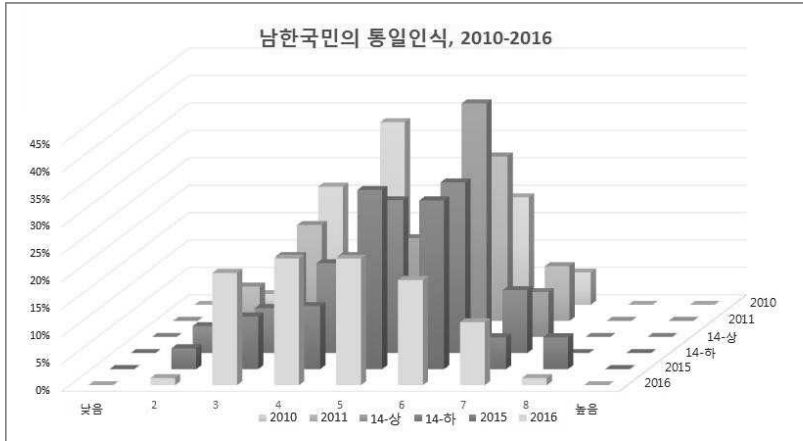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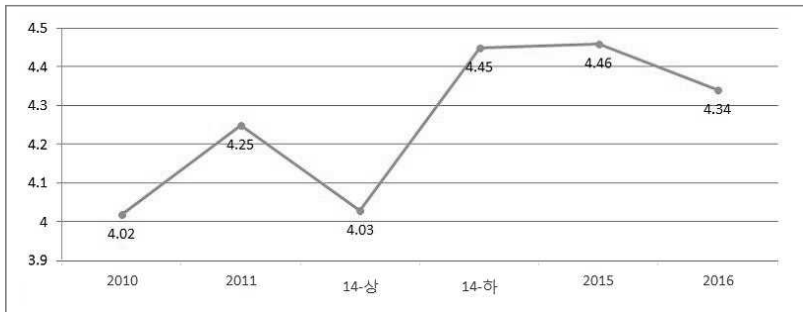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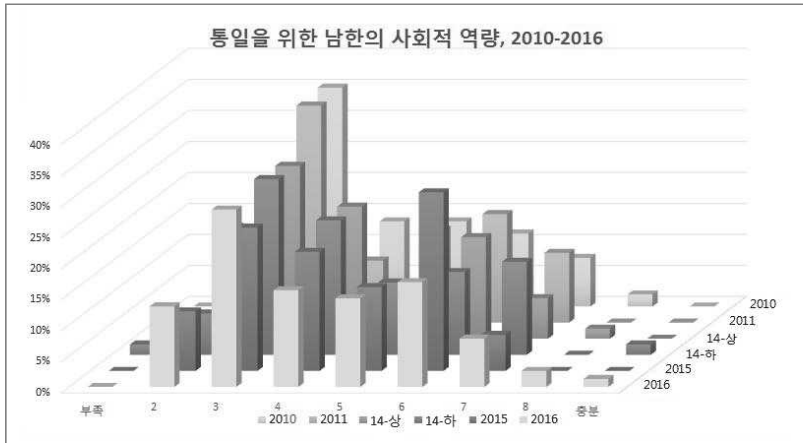
문7. 남한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인식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78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국민의 통일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통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의식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25명(32.1%)이었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35명(44.9%)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점차 높아져 2015년에는 5점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4점대로 하락했다.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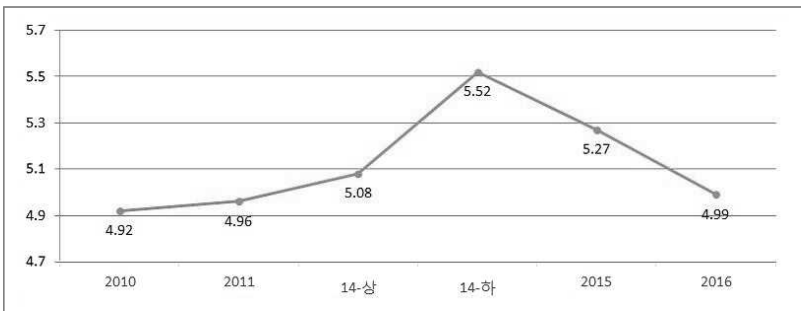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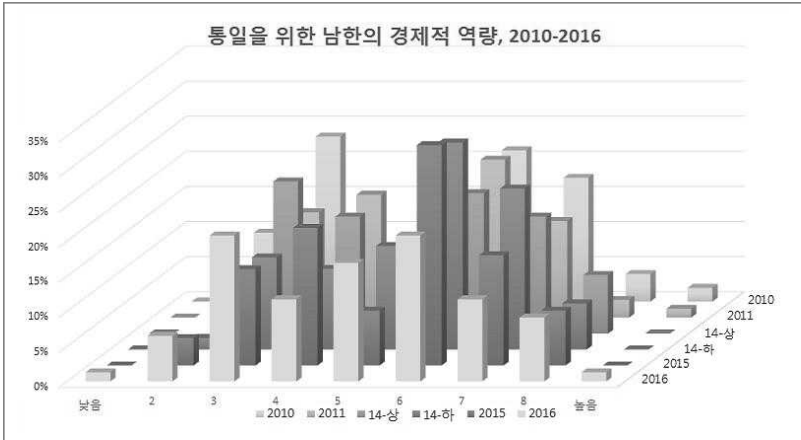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34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의 사회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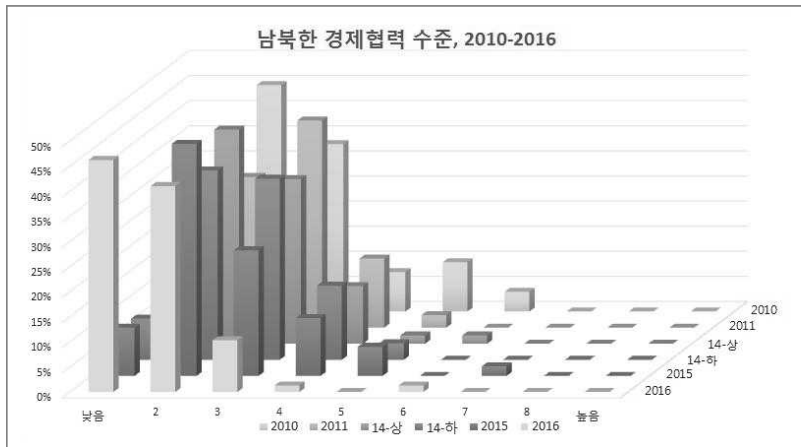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22명(28.2%)이었으며, 4점 이하라고 평가한 전문가는 44명(56.4%)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모두 4점대를 유지해왔으며, 2016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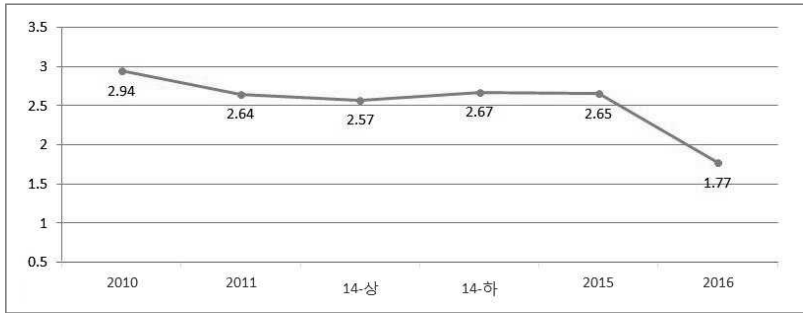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99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의 경제적 역량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그 경제적 역량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에 대하여 우호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4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31명(39.7%)이었으며, 6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는 33명(42.3%)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4점대 후반에서 점차 상승해 5점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2014년 하반기 조사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 왔다. 2016년 조사에서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하락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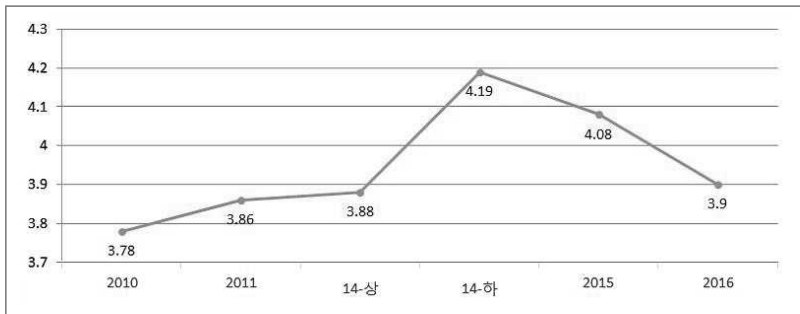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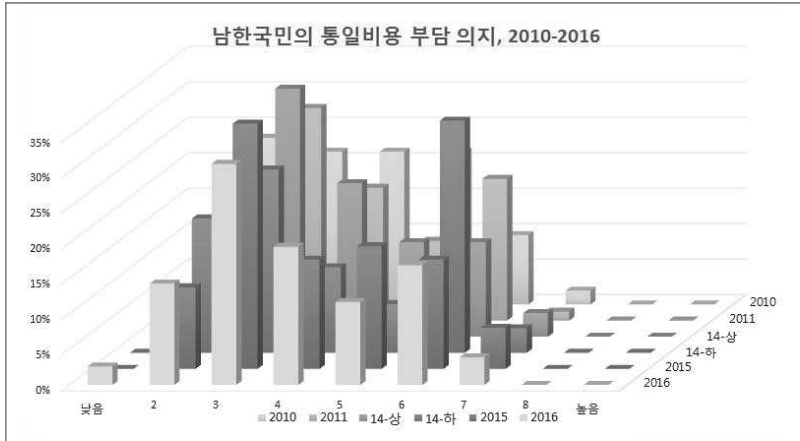


I
II
III
IV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1.77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경제협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 대부분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3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76명(97.4%)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해왔으며 다소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1점대로 더욱더 하락했다. 올해 2월 박근혜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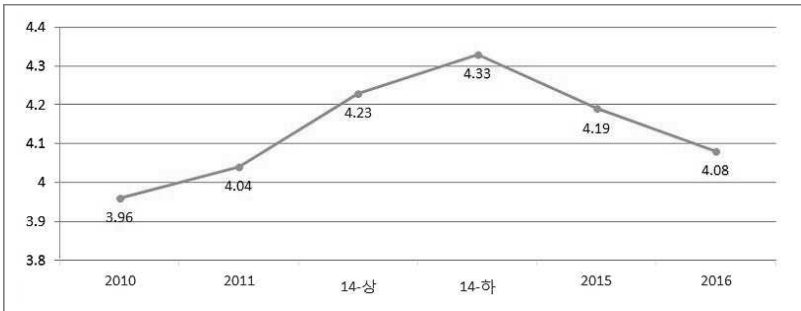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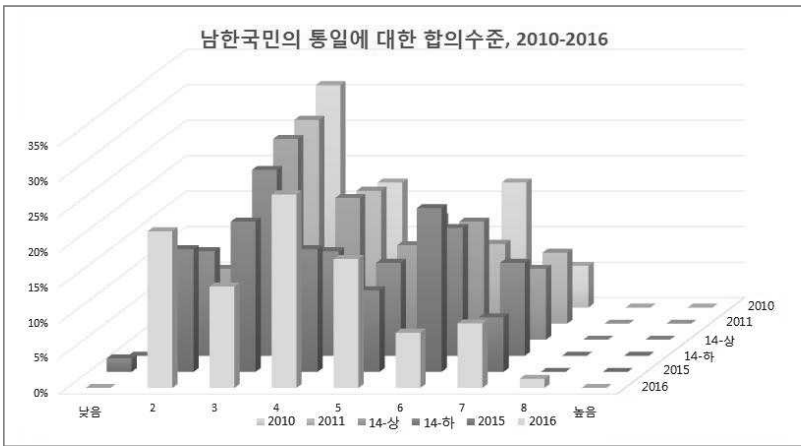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90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통일비용 부담 의지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가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4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52명(67.5%)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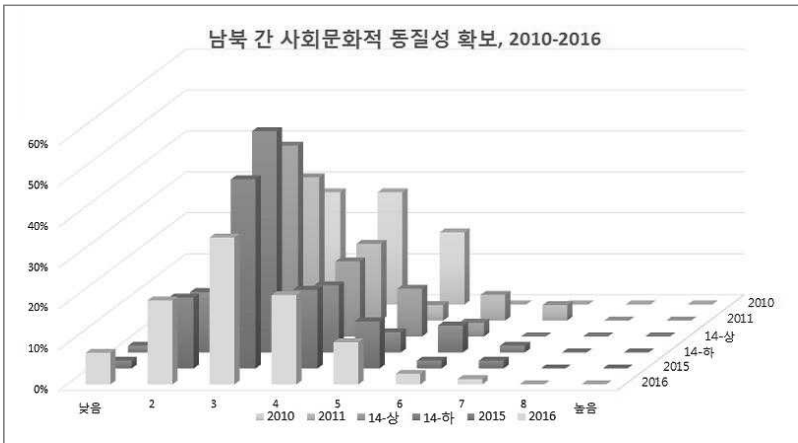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3점대에서 점차 높아져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조사에서는 4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3점대로 하락했다.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를 낮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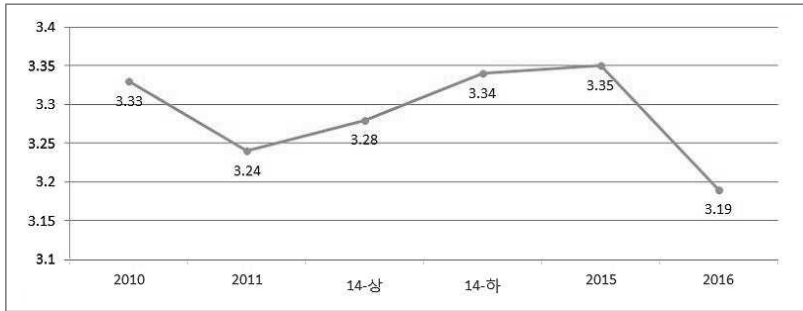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08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4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49명(63.6%)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3점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4점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2014년 하반기 조사를 정점으로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다.

문1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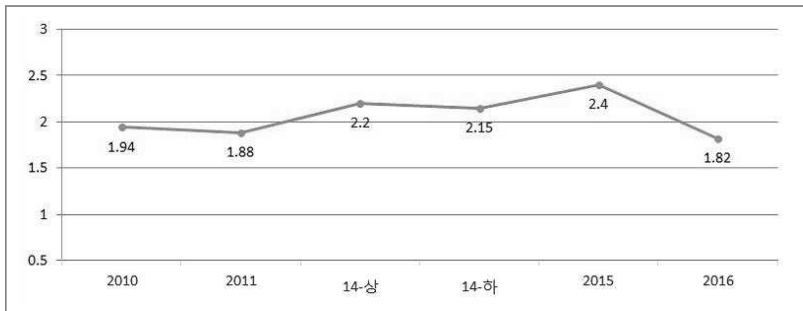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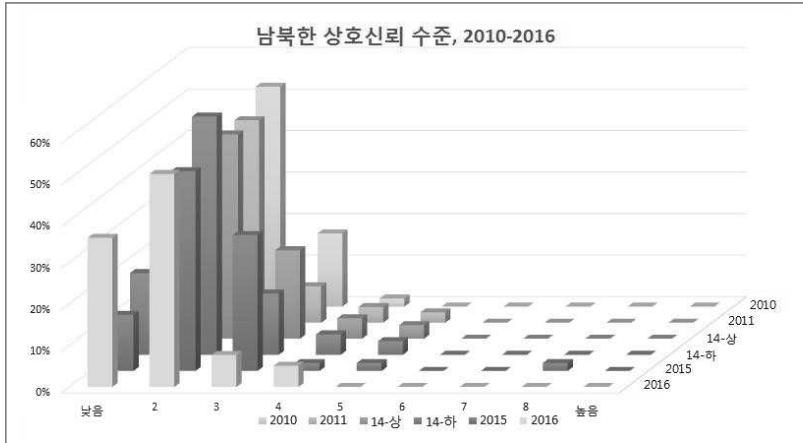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19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상호이해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수준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으며 다수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4점 이하라 대답한 응답자는 67명(85.9%)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눈에 띄는 변화 없이 3점대를 계속 유지해왔으며 2011년과 2015년 사이 점차적으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여전히 3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1.82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상호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 모두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100%) 본 설문문항에 4점

- I
- II
- III
- IV
- V

이하라 대답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1점대에서 아주 미미하게나마 점차 상승하여 2015년까지 2점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다시 1점대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결과인 1.82점은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표 III-5 통일 유형 점수와 남한의 역량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7. 남한국민의 통일의식 | 0.211 | 0.224 |
|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 | 0.193 | 0.325* |
| 문9.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 | 0.098 | 0.261* |
| 문10.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 | -0.034 | 0.014 |
|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 | 0.269* | 0.412* |
| 문15.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 | 0.281* | 0.460* |
|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 0.284* | 0.308* |
| 문17.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 | 0.144 | 0.147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표 III-5〉는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남한의 역량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합의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0.269)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0.281),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수준(0.284)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를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를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역량을 보여주는 이들 세 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그래프 모두 2016년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전문가들이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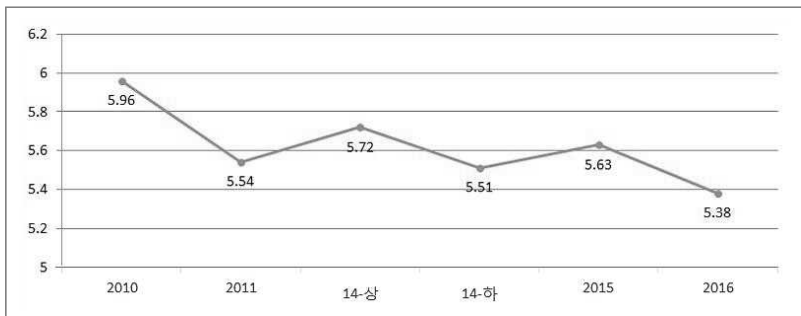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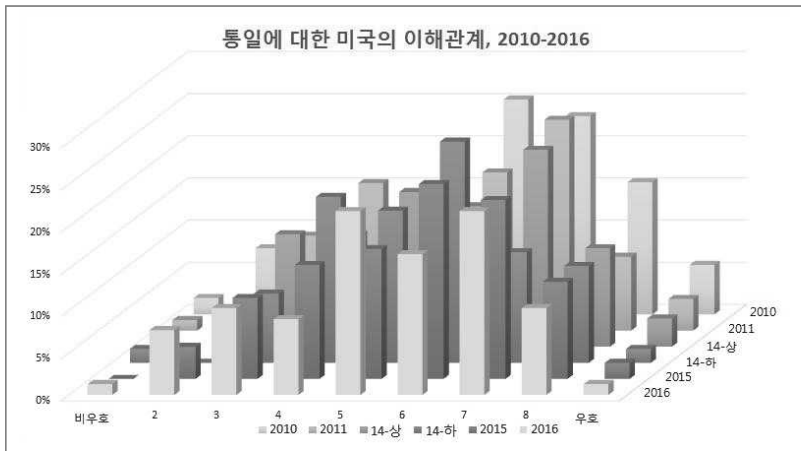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남한의 역량 설문문항은 다섯 가지였다. 이들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0.325)과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0.261),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0.412)와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0.460),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수준(0.308)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이들 다섯 가지 설문문항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이들 다섯 가지 설문문항에 나타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2016년도 상황이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다고 예상할 수 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바. 국제관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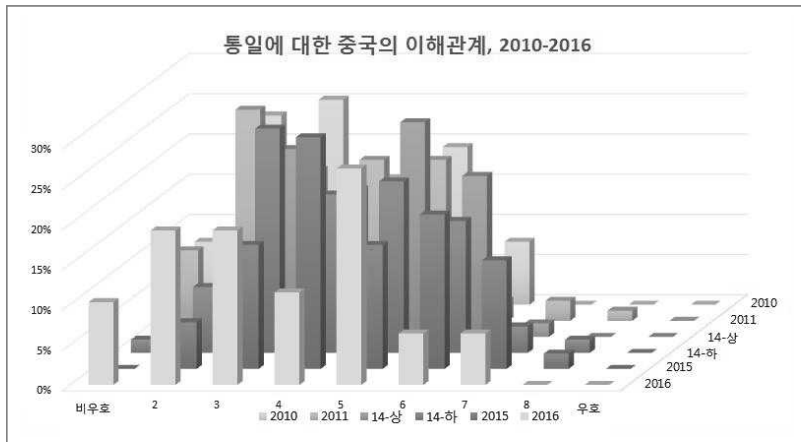
통일예측시계 전문가 패널 조사에 포함된 36개 설문문항 중 국제관계분야에 대한 설문문항은 일곱 가지이다. 여기에는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문31)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문30),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문32),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문33),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반응(문34),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문35),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문36)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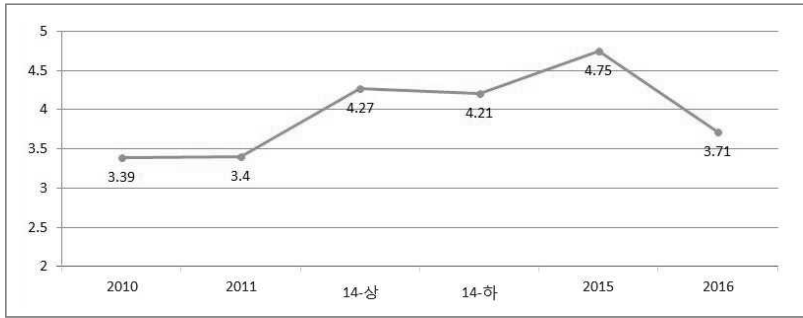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38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주 우호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39명(50.0%)이었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22명(28.2%)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5점대를 유지하면서도 미미한 변화폭을 가지고 점차 하락해왔다. 2016년 조사결과는 국내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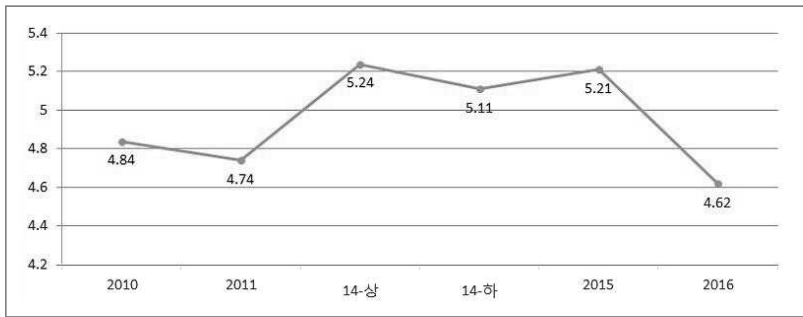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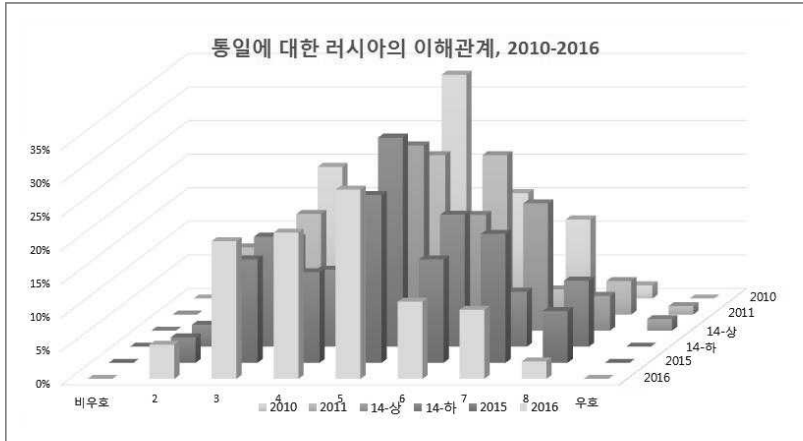


I
II
III
IV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71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소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10명(12.8%)에 그쳤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47명(60.3%)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3점대에서 시작해 2015년까지 계속 상승하여 4.75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6년 조사결과는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다시 3점대로 낮아졌다. 최근 들어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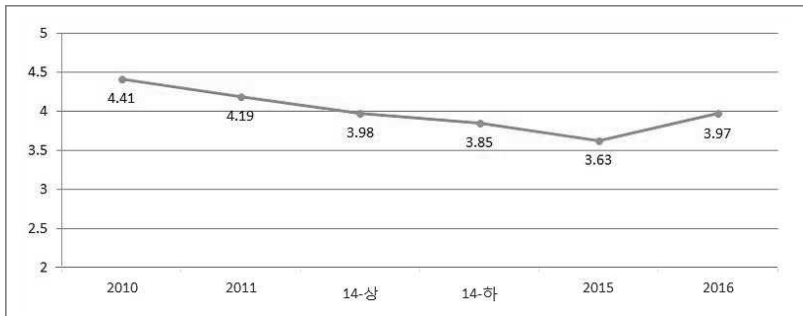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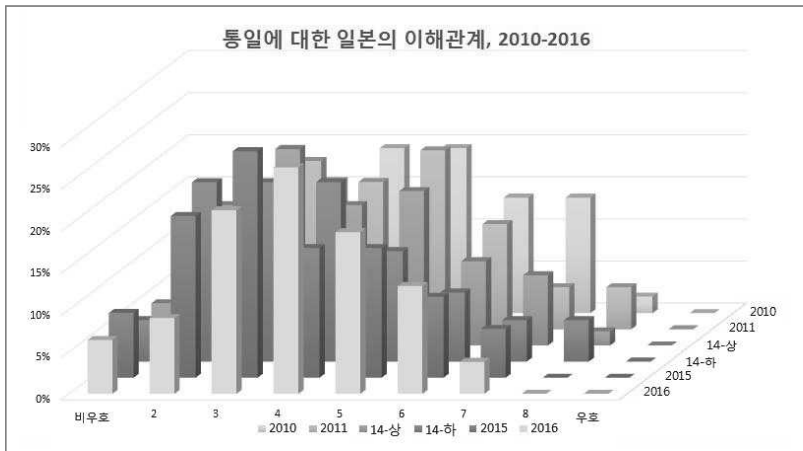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4.62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소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19명(24.4%)에 그쳤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37명(47.4%)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4점대에서 시작해 2015년까지 계속 상승하여 5점대에 도달했다. 국내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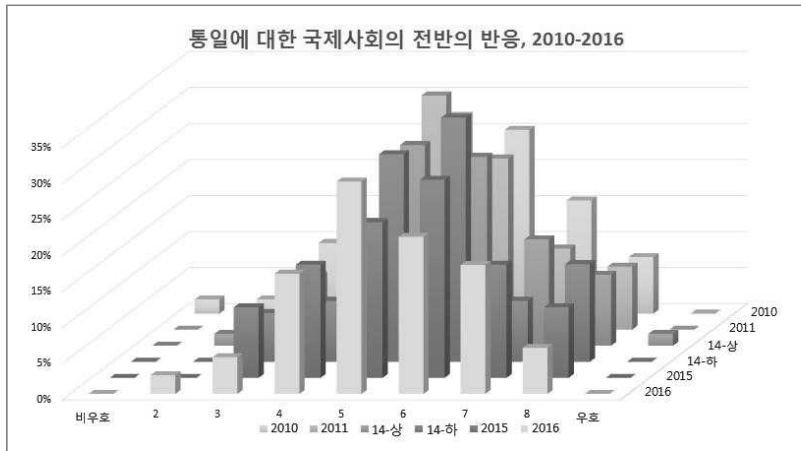
전문가들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우호적이라 평가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 조사결과는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다시 4점대로 낮아졌다. 국내 전문가 중 다수는 최근 들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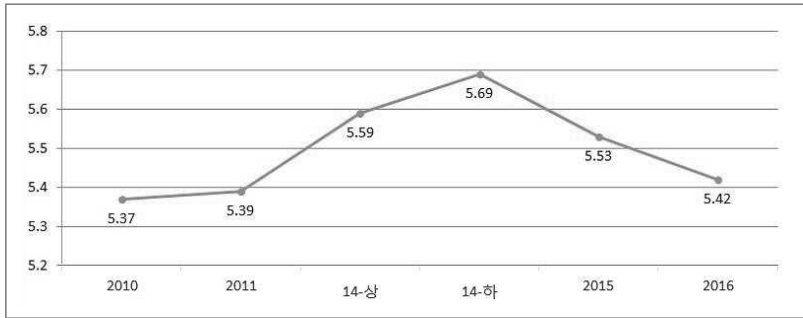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97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일본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13명(16.7%)에 그쳤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50명(64.1%)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4점대에서 시작해 2015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3점대로 낮아졌다. 국내 전문가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비우호적이라 평가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보다 확연히 많았다. 2016년 조사결과도 이러한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비우호적이라 평가하는 전문가가 다소 감소했다.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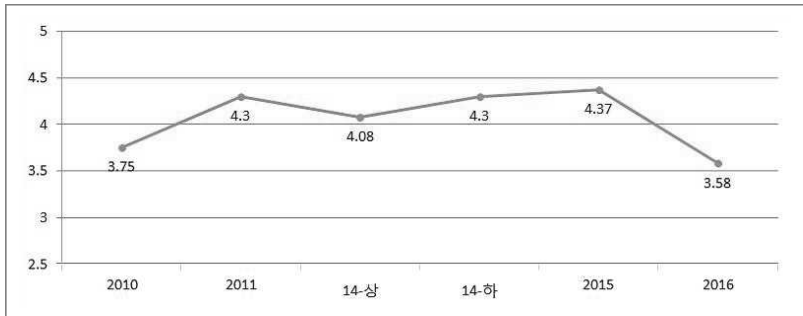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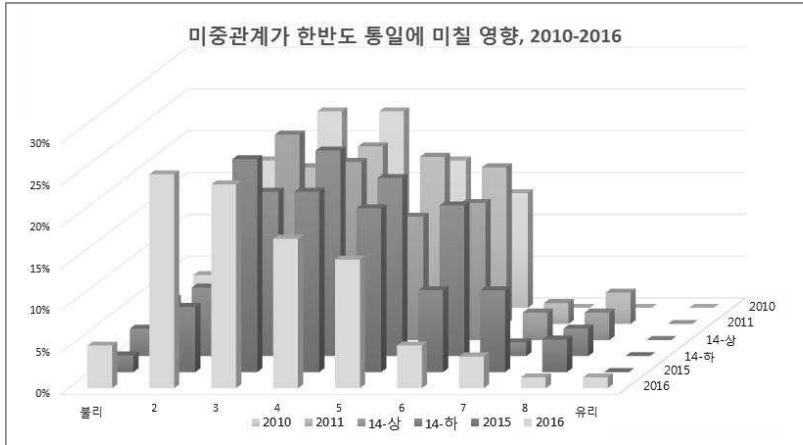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5.42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이 무척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국제사회의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이 다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36명(46.2%)이었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19명(24.4%)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5점대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점차 상승하다 하락하고 있다.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여전히 우호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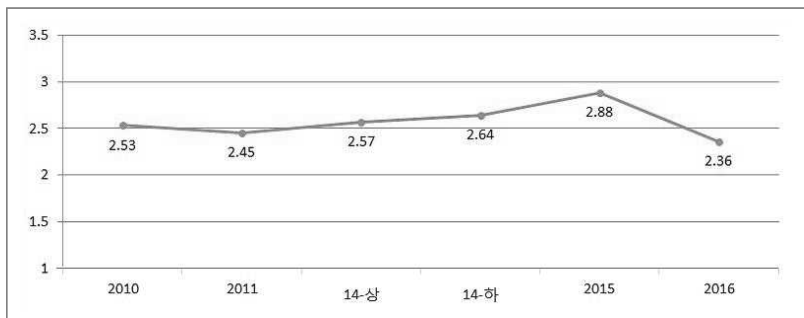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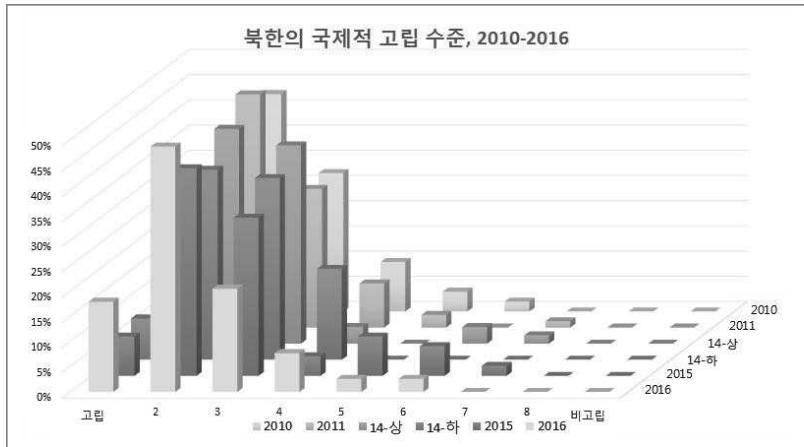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3.58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항은 1점에 가까울수록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한반도 통일에 매우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다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9명(11.5%)에 그쳤으며,

- I
- II
- III
- IV
- V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57명(73.1%)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3점대에서 4점대로 점차 상승해왔다. 국내 전문가 중 미증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는 이들이 다소 감소해왔다. 반면, 다시 3점대로 하락한 2016년 조사결과는 미증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는 전문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 패널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에 대하여 9점 만점에 평균 2.36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점이 가까울수록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9점에 가까울수록 북한이 전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했으며 대다수 응답자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본 설문문항에 6점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단 2명(2.6%)에 그쳤으며, 4점 이하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74명(94.9%)이었다. 2010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는 계속해서 2점대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점차 상승해왔다. 반면, 2016년 조사결과는 이러한 경향과 달리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다소 하락했다. 국내 전문가 대부분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 고립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표 III-6 통일 유형 점수와 국제관계분야 상관관계

| | 합의형 통일점수 |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
|--------------------------|----------|------------|
| 문31.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 0.253* | 0.322* |
| 문30.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 0.094 | 0.115 |
| 문32.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 -0.014 | 0.132 |
| 문33.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 | 0.159 | 0.222 |
| 문34.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반응 | 0.094 | 0.190 |
| 문35.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 0.191 | 0.113 |
|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 | -0.123 | -0.161 |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표 III-6〉은 통일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인 합의형 통일과 한국주도형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들이 국제관계분야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합의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0.253)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국제관계분야 설문문항은 단 하나로 역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묻는 문항(0.322)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호적이라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도 높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방식이 합의형 이든 한국주도형이든 두 유형 모두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호적일 때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2016년 조사를 포함한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국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 이해관계가 다소 감소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합의형 통일뿐 아니라 한국주도형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계량분석

가. 합의형 통일시계

표 III-7 2016년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

| 변수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Beta | t | P> t |
|--------------------|--------------|--------|--------|-------|-------|
| 김정은 체제 안정성 | 0.787 | 1.067 | 0.082 | 0.74 | 0.463 |
|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 | 2.679 | 1.132 | 0.276 | 2.37 | 0.021 |
|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 | 0.927 | 1.769 | 0.082 | 0.52 | 0.602 |
|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 | -1.368 | 1.951 | -0.131 | -0.70 | 0.486 |
|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 4.293 | 1.991 | 0.323 | 2.16 | 0.035 |
|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 2.129 | 1.020 | 0.238 | 2.09 | 0.041 |
| 상수 | -6.438 | 10.417 | | -0.62 | 0.539 |

*R-squared=0.212; N=74.

출처: 저자 작성.

〈표 III-7〉은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앞 절에서 수행한 다양한 통일요인들과 합의형 통일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들이다. 이들 여섯 가지 통일요인 중 종속변수인 합의형 통일점수에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우선, 북한에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동일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개혁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더욱이 이 항목에 대한 평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형 통일예측시계

I

II

III

IV

V

가 2015년 3:48에서 올해 3:31로 뒤로 물러난 것과는 일치한다.

둘째,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높아 서로 잘 이해한다고 평가한 전문가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가 합의형 통일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합의형 통일에 그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016년 조사결과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수준이 낮다(3.19점)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다. 그 정도가 큰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조사결과인 3.35점보다 낮은 점수는 2016년 합의형 통일시계가 뒤로 움직인 것과는 일치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일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 중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우호적(5.38)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 다음으로 러시아(4.62), 일본(3.97), 중국(3.71) 순으로 각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인지 평가했다. 즉, 이번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다수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은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좀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할수록 합의형 통일점수도 높게 평가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합의형 통일에 매우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의 전문가 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평가가 3.63점에서 3.97점으로 상승했을 뿐 나머지 3개국에 대한 평가는 하락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2010년 조사 이래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6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이해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2015년 5.63점에서 올해 5.38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2016년 합의형 통일시계가 뒤로 움직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나. 한국주도형 통일시계

표 III-8 2016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 회귀분석

| 변수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Beta | t | P< t |
|---------------------|---------------|--------|--------|-------|-------|
| 북한 내부 권력갈등 | -1.343 | 1.337 | -0.109 | -1.01 | 0.318 |
|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 | 1.309 | 1.269 | 0.114 | 1.03 | 0.306 |
|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 | 4.147 | 1.598 | 0.312 | 2.61 | 0.011 |
|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 | -3.029 | 1.342 | -0.240 | -2.26 | 0.027 |
|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 3.987 | 1.974 | 0.208 | 2.02 | 0.048 |
|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 1.737 | 1.183 | 0.151 | 1.47 | 0.147 |
| 상수 | 6.902 | 16.861 | | 0.41 | 0.684 |

*R-squared=0.362; N=74.

출처: 저자 작성.

〈표 III-8〉은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에 대한 통일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앞 절에서 수행한 다양한 통일요인들과 한국주도형 통일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들의

I

II

III

IV

V

일부분이다. <표 III-7>의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통일요인들은 모두 종속변수인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들이다. <표 III-7>의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여섯 가지 통일요인 중 0.05 수준에서 한국주도형 통일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우선,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전문가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주도형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016년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을 평균 4.08점으로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는 2014년 하반기 조사 이후 계속해서 낮아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반을 둔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2015년 4:59에서 2016년 4:34로 뒤로 움직인 것과 일치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전문가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는 낮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주민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체제 불만족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2015년 5.25점보다 다소 낮아진 5.00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지난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한국주도형 통일이 이루어질 시간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2016년 현재 한국주도형 통일시계의 시간은 2015년보다 더 뒤로 움직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주도형 통일이 가능한 시간이 더 멀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전문가일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주도형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한국주도형 통일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에서 좀 더 심층적인 전문가 개별 면접을 통해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2016년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7.19 점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2015년의 6.77점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2016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가 뒤로 움직였다고 평가한 것과도 불일치한다.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상승했으므로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도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 2부 •

통일예측시계의 대안 모색



IV. 통일관련 주요 사안의 전망과 분석

홍우택(통일연구원)



1부는 통일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분석이었다. 즉 통일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인 동시에 일반론적인 분석이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 상호관계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에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통일과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통일에 다가설 수 있는지는 1부에서 다루지 않았다. 1부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1부와는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통일에 관련된 다른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통일에 관한 정태적인 분석을 넘어 동태적인 사안을 다루었고, 일반적인 사안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면할 상황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 많은 상황들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2부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안 두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다룬 사안은 북한의 급변사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징조라고 생각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계속되는 탈북행렬도 북한에서 발생할 급변사태의 징조라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순조로운 통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를 기초로, 첫 번째 분석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가져올 상황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다루었다.

두 번째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주변국들이 어느 정도의 협력과 지원을 보일 것이며, 그리고 그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평화통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어느

| |
|-----|
| I |
| II |
| III |
| IV |
| V |

정도 협력을 보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우리외교의 근간으로 삼다보니 이를 위해선 다른 사안을 감수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외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1. 분석방법

2부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게임이론이다. 그리고 SENTURION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인공지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SENTURION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입력한 사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말을 맺을지 시뮬레이션을 하여 결과를 내놓는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정책이나 전략을 검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미래를 전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³⁰⁾

SENTURION 프로그램으로 특정 사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슈 연속선(Issue Continuum: IC)을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분석하고자 하는 사안의 구조와 그 구조에 따른 척도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안 중의 하나는 북한의 급변사태다. 즉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결 수월하게 통일을 만들 수 있는지,

³⁰⁾ SENTURION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SENTURION 프로그램은 2005년 미국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로부터 미래예측분야의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미국 JWAC(Joint Warfare Analysis Center)는 미래예측의 정확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SENTURION을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SENTURION 프로그램은 미국의 CIA를 비롯한 정부기관 그리고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 등이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북한 급변사태의 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입장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별한 정책입장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동반되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반면,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방해하는 정책도 있다. 이렇게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정치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책입장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SENTURION 분석의 다음 단계는 해당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안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을 선별하고 나면 이들에 관한 세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해당사자들이 앞에서 구성한 이슈 연속선(IC)에서 어떤 정책입장을 선호하는지를 말한다.

두 번째 데이터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진 영향력(power)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가진 일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한다. 어떤 사안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이해당사자들도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문제를 결정하는 사안에서 통일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대북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반대가 된다. 여기서 영향력 데이터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상대적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영향력(power)은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지닌 영향력과 이

| |
|-----|
| I |
| II |
| III |
| IV |
| V |

해당사자들이 소속된 그룹의 영향력(Group Influence)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분석을 하는 사안이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있으면 국가별로 영향력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해당사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를 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다른 국가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설정한다.

다음 데이터는 중요도(importance)로 이해당사자가 해당 사안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이해당사자의 책상위에는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안은 한 달 뒤로 미뤄 처리를 해도 무방한 사안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오늘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중요도가 '0'이라는 의미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관심이 없다는 의미인 반면, '100'의 의미는 그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뜻이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는 문헌조사 혹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대부분의 사안에 관한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다.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 그리고 관련 논문 등에는 특정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미 정상회담을 다룬 기사를 보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공개된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유용한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 동일하지는 않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 원인을 달리 풀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SENTURION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는 전문가의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북핵문제의 원인이나 대응책을 전문가들에게 묻는 경우 전문가들의 답변은 제각각일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어떠한 정책입장을 선호하고, 이들이 가진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은 서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북한에서 핵문제에 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당사자는 김정은이며, 김정은이 핵문제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선호하는지는 전문가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2. 통일관련 사안 전망

가.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되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구권 국가들과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도 머지않아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논의가 거의 시초였다. 2008년에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또 다시 화두가 되었다. 지금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심은 식지 않았다. 김정은의 폭거가 계속되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고, 북한 고위층의 탈북행렬이 북한 붕괴의 조짐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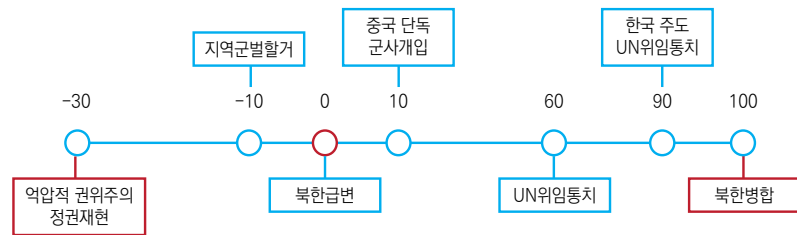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내부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북한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두고 급변사태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생하거나 쿠데타나 내란 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을 급변사태로 보기도 한다.³¹⁾ 문제는 만일 북한에 이러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

| |
|-----|
| I |
| II |
| III |
| IV |
| V |

는 것이 통일에 한걸음 손쉽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소위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단지 북한 내부의 정권교체로 이어질 지 살펴보았다.

그림 IV-1 ▶ 북한의 급변사태 이슈 연속선(Issue Continuum)



출처: 저자 작성.

위의 <그림 IV-1>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책입장을 ‘-30’에서 ‘100’까지의 척도에 배열한 것이다. ‘0’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현재의 상황이라고 가정한 지점이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성격을 강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10’의 지점은 중국이 북·중 국경선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여 북한주민이 국경선을 넘는 것을 통제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급변사태가 자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최소한의 개입

31)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차원의 대비 방향,” 박관용 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p. 59~61;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제47호 (2009), p. 40.

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60’은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에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위임통치가 시행되는 지점이다. 이보다 한 단계 올라간 ‘90’은 UN에 의한 위임통치가 시행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이 위임통치를 주도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묵인하거나 합의한 상태를 일컫는다. ‘100’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10’은 김정은이 통제력을 상실한 이후 어느 누구도 북한에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특히 군대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지역별 혹은 다른 이유에 따라 군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30’은 김정은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물이나 세력이 등장하여 급변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북한을 다시 안정시키는 상황이다.

종합하면 <그림 IV-1>의 이슈 연속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선호하는 대안들이다. 물론 <그림 IV-1>의 이슈 연속선에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각의 숫자로 표시한 정책대안 사이의 간격이 정책의 강도를 의미하는 만큼, 어떠한 정책대안도 위의 이슈 연속선에 배열할 수 있는 것이다.

(1) 초기 정치 지형도

다음의 <그림 IV-2>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19일에서 9월 7일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이슈 연속선 상에 배열한 화면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정치 지형도(political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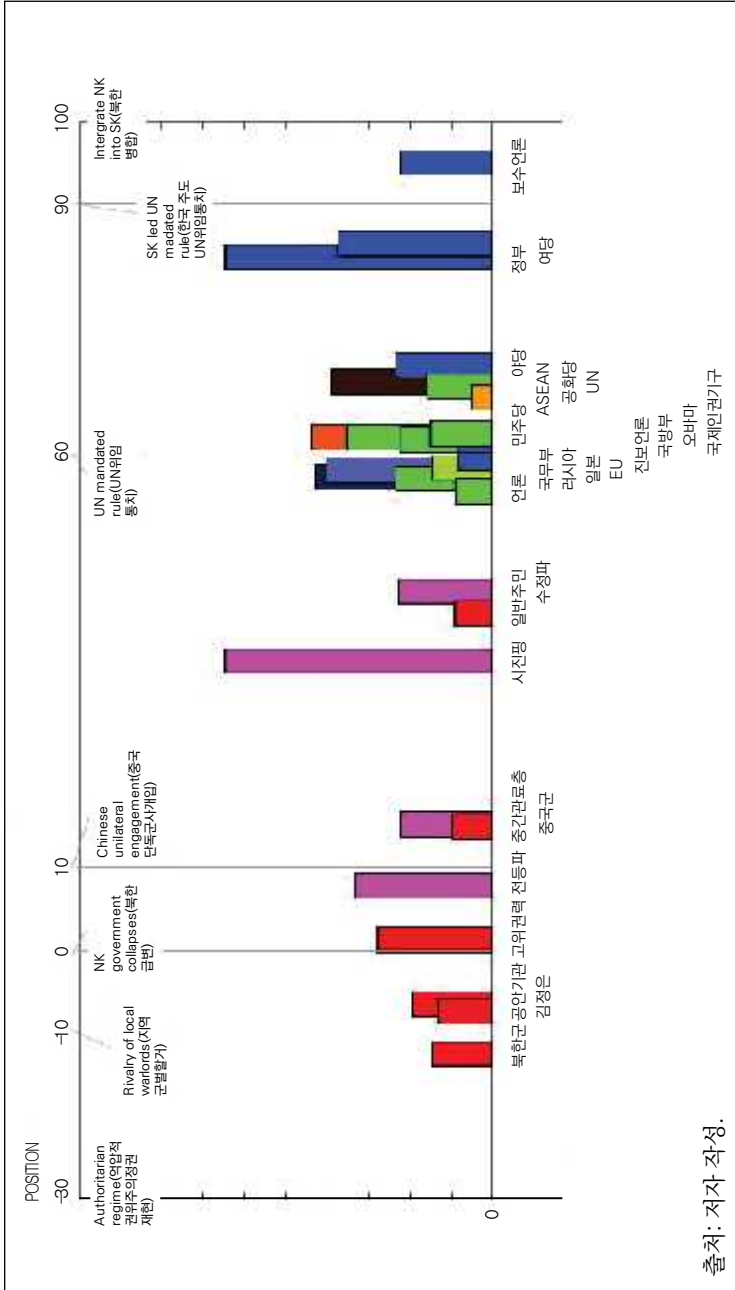
이다. 정치적 지형도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과 그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림 IV-2〉의 상단을 보면 각각의 정책입장 혹은 정책선호도가 ‘-30’에서 ‘100’까지 수평으로 위치해 있으며, 국가별로 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각기 자신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한국이 주도하는 UN위임통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자신만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은 UN의 위임통치하에 북한을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이해당사자들은 UN의 위임통치보다는 낮은 단계의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중국은 UN의 위임통치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정하면서 북한 내부의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막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풀고자 하는 해법에 대해 각각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급변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다음 장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급변사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이라크와 같은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림 IV-2 북한 급변사태의 정치적 지형도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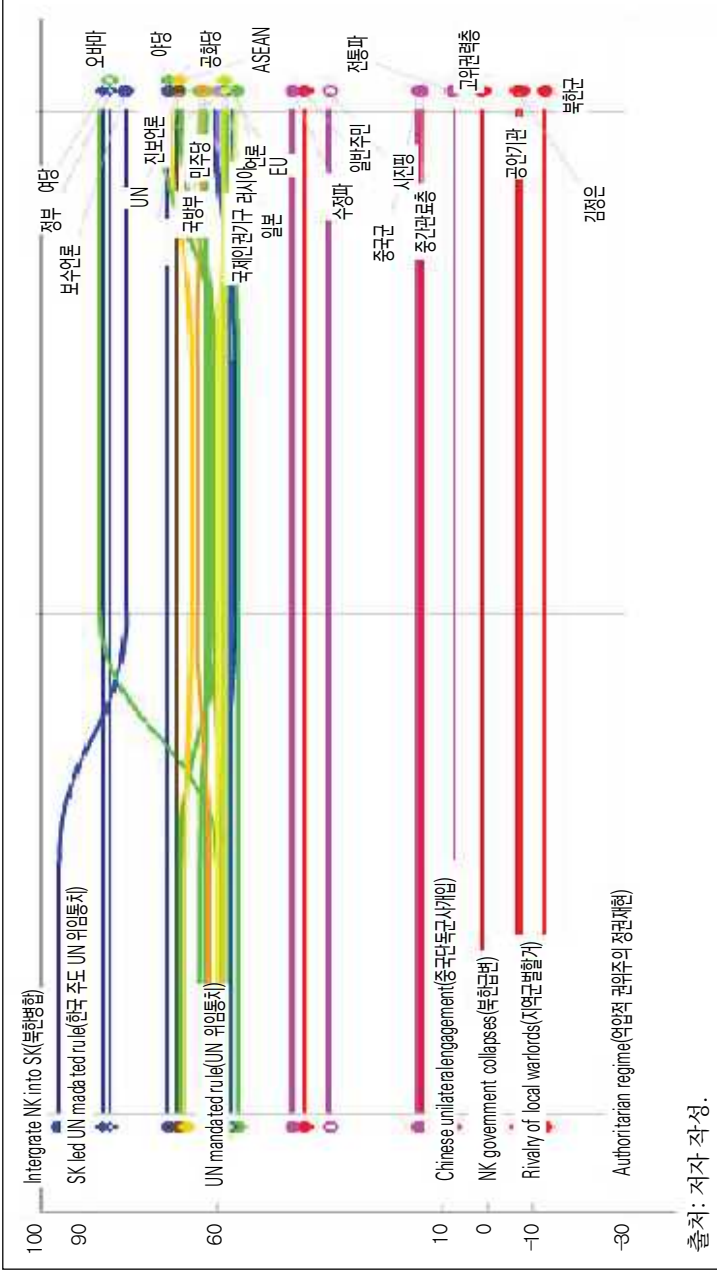
(2) 전망 결과

〈그림 IV-3〉은 SENTURION으로 분석한 북한의 급변사태 진행결과 화면이다. 〈그림 IV-2〉와는 달리 〈그림 IV-3〉에서는 이슈 연속선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의 하단에 사각형 안의 1, 2, 3의 숫자는 라운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³²⁾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변화 여부를 〈그림 IV-3〉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IV-3〉을 보면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생긴 행위자는 극소수다. 오바마의 경우는 UN주도 위임통치를 선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UN 위임통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UN 위임통치'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중위값(median)이 '58'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북한의 급변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UN 주도의 감독기구나 군사기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문제는 UN 주도의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³²⁾ 라운드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다음을 참조. 홍우택,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1~53.

그림 IV-3 북한 급변사태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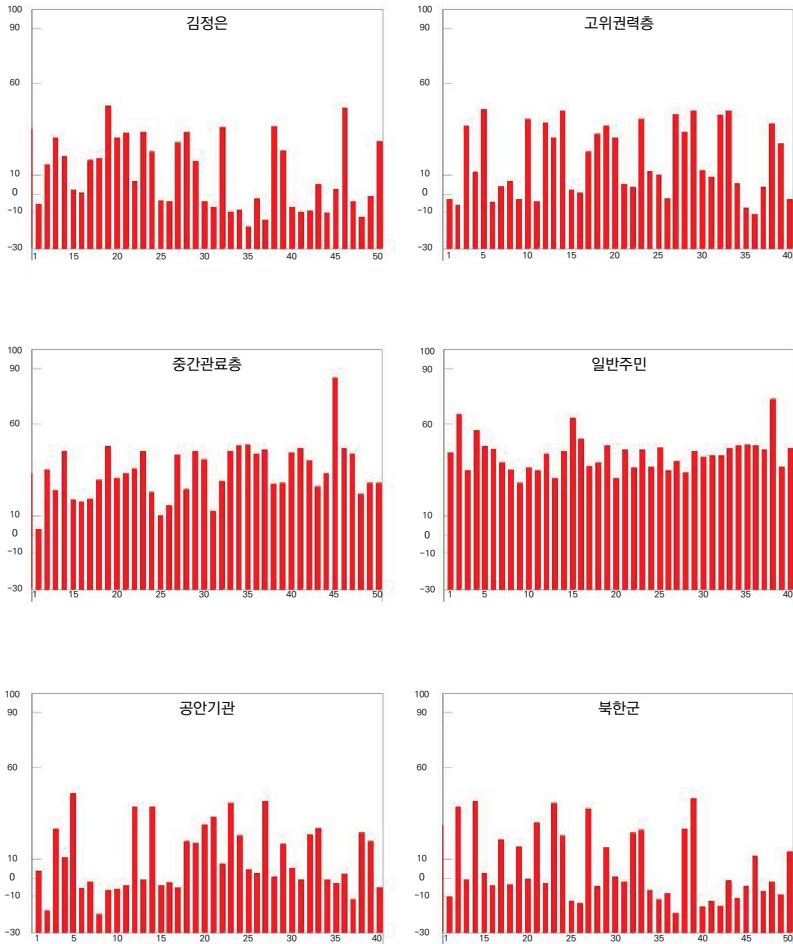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UN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지속한다는 데 있다. 특히 문제는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한 이해당사자들은 ‘-10’ 지점인 ‘지역 군벌 할거’에서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의 이해당사자들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여 다른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어느 이해당사자도 북한 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자신의 세력하에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은 다양한 세력들 간의 영향력 다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10’ 지점과 ‘35’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형태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자적인 형태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경부근에 군사를 배치하여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UN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북한 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는 형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림 IV-3>의 전망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몬테카를로 분석을 하였다. 몬테카를로 분석이란 초기 정치적 지형에 예견되지 않은 충격이 가해지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조사한 데이터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해당사자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림 IV-3>의 전망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IV-4〉는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의 몬테카를로 분석결과다. 각각의 그림에서 수직축은 이슈 연속선(IC)의 정책입장이며, 수평축은 이해당사자의 데이터가 정규분포 상에서 ‘+/- 20%’ 변화할 시 이해당사자 입장의 최종결과 값을 보여준다.

그림 IV-4 몬테카를로 분석결과: 북한 이해당사자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4〉에서 김정은의 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의 입장은 ‘-10’ 주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0’ 이상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시 김정은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확률도 4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보면 김정은이 급변사태 이전의 체제로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김정은은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망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앞의 〈그림 IV-4〉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간관료층과 일반주민의 성향이 고위권력층이나 북한군부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중간관료층과 일반주민이 더 많이 UN의 위임통치를 의미하는 ‘60’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공안기관과 북한 군부의 경우 ‘0’을 넘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북한의 고위권력층에서 ‘10’을 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종합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내부의 각각의 계층과 그룹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북한의 군부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한 선택을 하는 반면, 이들보다는 북한의 고위권력층이 중국의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관료층과 일반주민은 중국의 개입을 넘어 UN의 위임통치 가까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간관료층과 일반주민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UN의 위임통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나. 한반도 주변국의 통일지지 여부

대한민국 외교의 한 축은 통일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통일외교가 밑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다른 종류의 외교가 세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외교 마찰이라도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통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국가와의 마찰이 생기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우려다.

통일을 이루는 데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통일외교가 성공하였기 때문이고, 또 주변국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남 잘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맞다면,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동독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독일의 주변국들이 독일 통일에 훼방을 놓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주변국들의 역할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상황에선 어느 국가도 독일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주변국이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국가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어느 국가도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섹션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어느 정도 도우려고 하는지 분석하였다. 물론 주변국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번 섹션은

| |
|-----|
| I |
| II |
| III |
| IV |
| V |

주변국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여부를 분석하여 우리의 정책방향에 냉정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림 IV-5〉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선택 대안지를 나열한 이슈 연속선(Issue Continuum)이다. '0' 지점은 분단이 계속되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한반도에서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한국을 도울 것인지 정책강도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자신이 가진 자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할 것인가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다. 100퍼센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모든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국의 통일에 자신의 생사를 거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가진 자원의 50퍼센트를 활용하여 통일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자원 10%를 활용하여 돕는 것도 결코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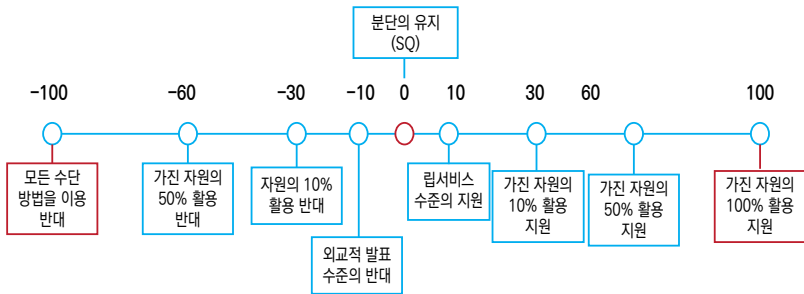
하지만 본 분석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는 최소치를 정책지점 '60'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신이 가진 자원의 50퍼센트 정도를 활용한다는 의지 수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변국의 도움 수준이자, 통일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정책지점 '30'은 돕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도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립서비스 수준의 지원이라고 명시한 정책지점 '10'은 단순한 외교적 동의를 표하는 정책지점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정책지점들을 나열하였다. '-100'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는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정책을 선택하는 지점이다. 당연히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비해 '-60'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막는 선택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0'은 자원의 10% 정도를 활용하여 통일을 막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와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행위로 보았다.

이렇게 이슈 연속선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수 수준(ordinal level)으로 구별하였다. 그 이유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이 선택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대안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주변국들의 정책을 추론하는 것이 분석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IV-5 ▶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이슈 연속선(Issue Continuum)



출처: 저자 작성.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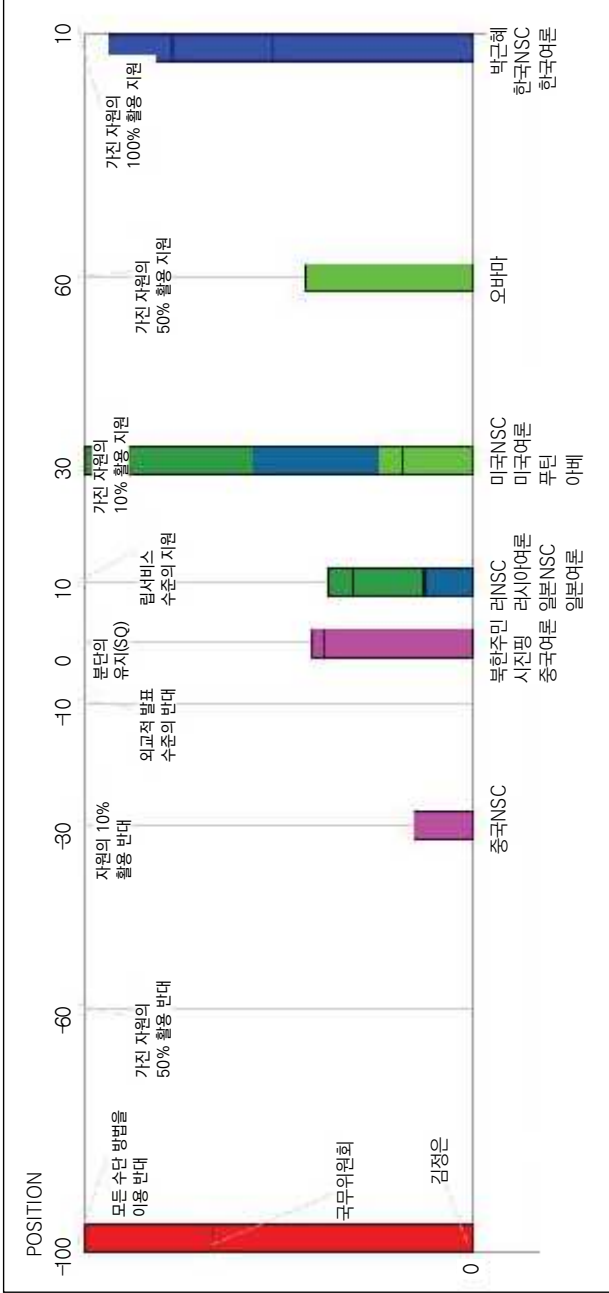
(1) 초기 정치 지형도

〈그림 IV-6〉은 앞의 섹션과 같은 기간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이슈 연속선 위에 표현한 것이다. 남한의 이해당사자들과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은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한과 북한 그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주도하는 통일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양 끝에 위치한 반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은 '-30'에서 '60'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정부기관과 여론,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러시아의 정부기관과 여론은 이들 국가의 수장보다 한 단계 낮은 입장인 립서비스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주변국가들 중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에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진핑과 중국 여론은 분단이 계속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정부기관은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주민들은 분단이 계속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아직 북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만일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고 또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벌써 북한 내부에 반정부 운동과 같은 붕괴의 조짐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IV-6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초기 정치 지형도



출처: 저자 작성.

종합하면 현재까지 우리의 통일외교는 미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주변 국가들이 '60'에 가까운 위치를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입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통일외교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반대쪽에 가까운 중국의 현재 입장을 보면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각국의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물론 이들 국가가 모두 '60'의 위치에 모인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60'의 위치를 선호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미래의 입장이 현재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우리의 통일외교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전망결과

〈그림 IV-7〉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SENTURION 분석화면이다.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30'의 지점으로 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위값(median point)이 '30'의 위치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주변국들이 소극적이거나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호도를 바꾸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림 IV-8〉은 이해당사자들의 최종 입장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IV-6〉과 〈그림 IV-8〉을 비교하면 이해당사자들의 초기 입장과 마지막 입장을 비교할 수 있다. 유일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국가의 이해당사자들은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은 주변국들이 남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초기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는 없지만 통일에 관해서는 북한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러시아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해당사자들이 역할을 한다고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9〉에서 첫 번째 열의 행위자는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자를, 두 번째 열은 영향을 받은 행위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열의 파란 화살표는 움직임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을 한반도 통일에 무관심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만든 이해당사자들에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그리고 아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일의 최고 통수권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과 여론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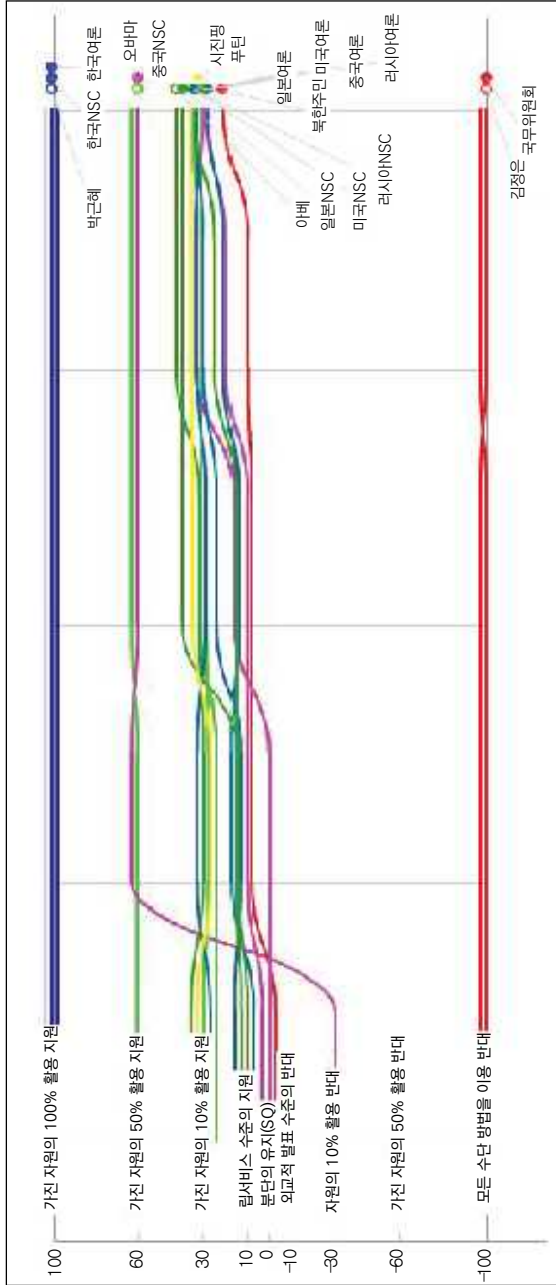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V-7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전망 결과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8 주변국의 한국주도 통일지지 최종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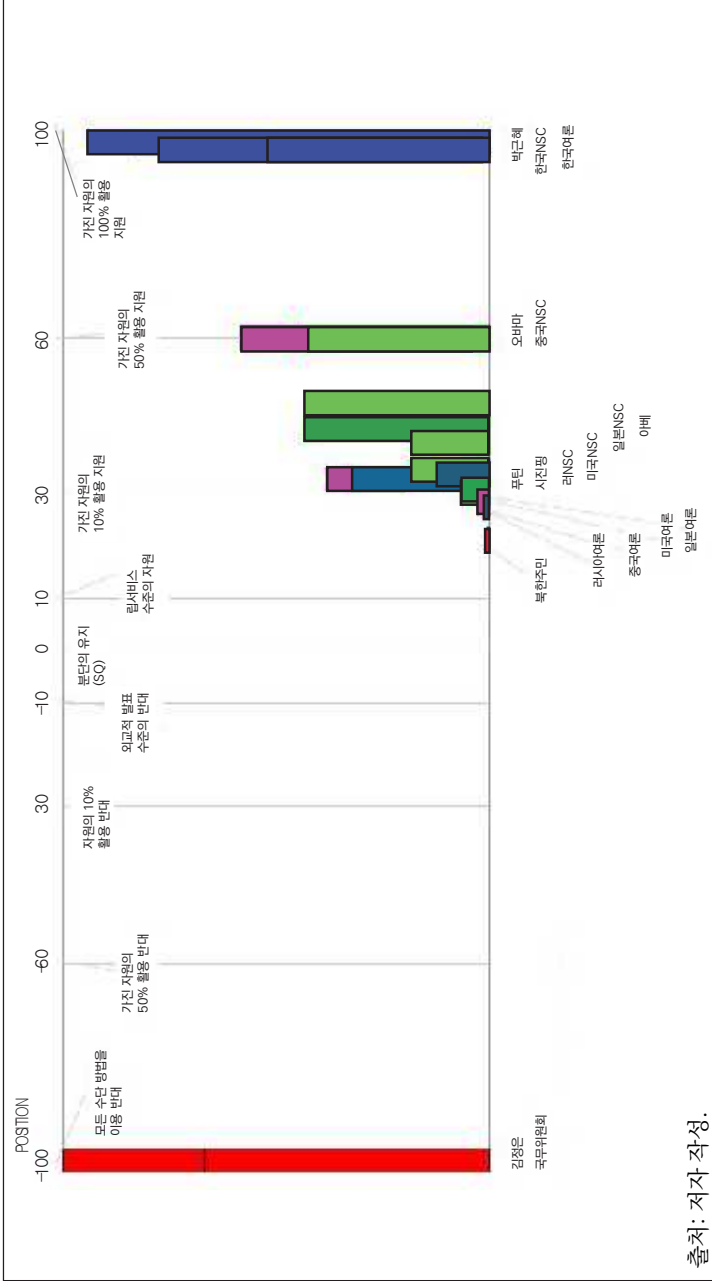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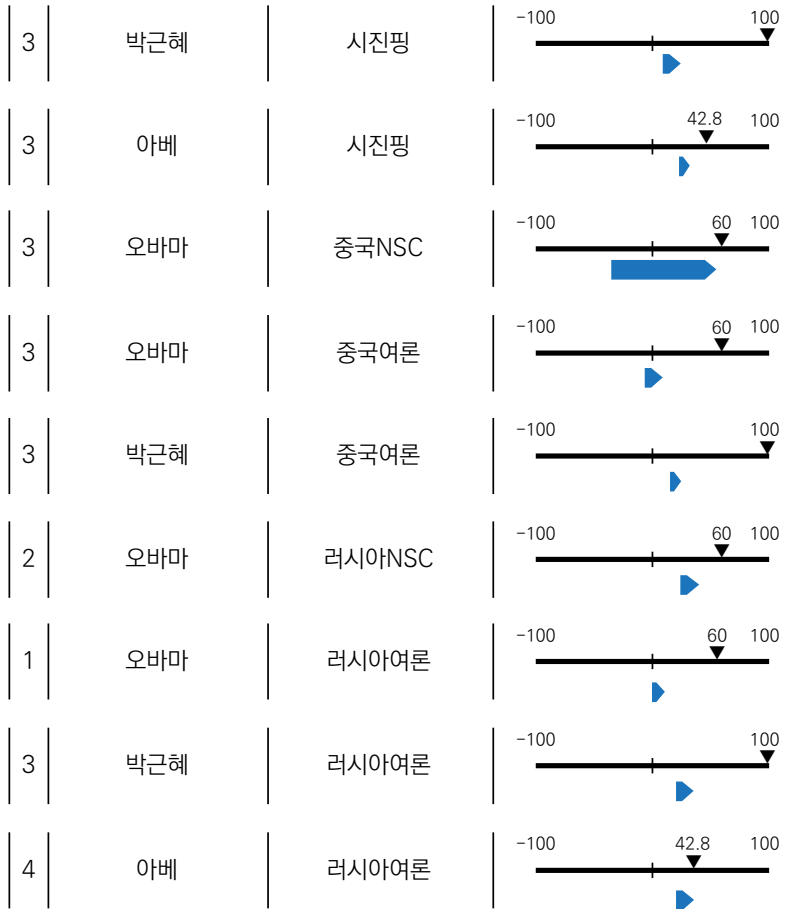


그림 IV-9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을 움직인 이해당사자들



출처: 저자 작성.

3. 분석결과와 함의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사태가 통일의 기회로 작용을 할지 분석하였고, 두 번째 사안은 통일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주변국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우리를 도울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분석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급변사태가 북한에 발생하면 당연히 북한은 친 남한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급변사태는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내부에 통일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첫 번째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통일에 저항하는 북한 내부의 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연구에는 저항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석 결과에서 중국이 남한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헛된 노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다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 연구는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도 통일외교의 접근 방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을 통일에 협력하도록 움직이는 행위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이해당사자들이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도움

| |
|-----|
| I |
| II |
| III |
| IV |
| V |

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인 것을 보면,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통일외교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외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변국 이해당사자들이 통일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이들의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주변국의 투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도, 그만큼 상실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V. 결론: 종합평가 및 시사점

김규륜(통일연구원)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통일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통일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통일예측시계를 구축하고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남한의 전문가 집단과 통일연구원의 연구진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중요한 소통의 기제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연구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전문가 집단에게 전달되기도 하면서, 매년 변화하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통일문제 관련 중요한 분야 및 세부사안의 선정과정에서는 통일연구원 연구진의 축적된 지식과 외부 패널의 반응을 조율하게 되며, 통일시계 구성과정에서는 통일시점 및 통일방식에 대한 연구진과 외부 패널의 협업에 의해서 시계를 측정하게 된다. 한편 일반인들에게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의견수렴을 통일시계라는 보다 친숙한 개념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통일시계의 측정결과는 과거의 통일시계 측정결과와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객관적 표현이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측정된 통일의 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반영해서 과거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도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구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 상황이 이미 7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시간대의 설정에 대한 우리의 관점 및 연구가 10년 또는 20년의 단기 또는 중기적 차원의 사고를 넘어서, 30년 이상의

| |
|-----|
| I |
| II |
| III |
| IV |
| V |

장기적 시간대 설정에 의한 통일에 대한 사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사점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 관련 시간대의 설정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시계 측정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연구의 계속성이라 할 수 있는바, 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한 통일시계는 일관적인 틀을 활용해서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관점을 추적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통일시계의 측정결과로 추세적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주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통일시계뿐 아니라 의견조사에 의한 대부분의 연구가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통일시계 측정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통일시계 측정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제적 공동연구를 통한 통일시계 측정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 한반도 통일시계가 구축된다면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보다 객관적 시각에 입각한 통일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박영호·김형기. 『2011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2014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홍석훈 외. 『2015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홍우택.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2. 논문

-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제47호, 2009.
-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차원의 대비 방향.” 박관용 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Basu, Shankar and Roger G. Schroeder. “Incorporating Judgements in Sales Forecasts: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at American Hoist & Derrick.” *Interfaces*. vol. 7, no. 3. 1977.
- Dalkey, Norman and Olaf Helmer.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vol. 9, no. 3. 1963.

3. 기타자료

CSIS.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A Working Group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2002.

아사히글라스재단. <www.af-info.or.jp>.

위키피디아. <en.wikipedia.org>.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 |
|----------------------------------------------------------------------------------|-------|
|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 통일연구원 |
|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 통일연구원 |
|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 통일연구원 |
|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 통일연구원 |
|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 통일연구원 |
|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 통일연구원 |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
|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 통일연구원 |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 통일연구원 |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 통일연구원 |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 통일연구원 |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 통일연구원 |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통일정세분석

| | |
|-------------------------------------|-------|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 박형중 외 |
|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 박영자 외 |
|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 김규륜 |

통일나침반

| | |
|-------------------------------------------------------|-----------------|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 김진하 외 |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 한동호, 도경욱 |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 김석진 |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 이애리아, 이창호 |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 이 석 |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 김갑식 외 |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통일플러스

| | |
|----------------------------------------|-------|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 통일연구원 |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 통일연구원 |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 통일연구원 |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 통일연구원 |
|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 통일연구원 |
|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 통일연구원 |
|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14 | 한동호 외 | 24,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 한동호 외 | 23,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5 | 도경옥 외 | 19,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 도경옥 외 | 23,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6 | 도경옥 외 | 18,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 도경옥 외 | 22,500원 |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 이교덕 외 | 7,500원 |
|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 박형중, 박영자 | 7,500원 |
|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 김석진, 양문수 | 9,000원 |
|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 성기영 외 | 7,000원 |
|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손기웅 외 | 6,000원 |
|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 14,000원 |
|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 한동호 | 6,000원 |
|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 이금순, 도경옥 | 8,000원 |
|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 박영호, 정성철 외 | 11,000원 |
|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 김규륜 외 | 10,500원 |
|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 정영태, 홍우택 외 | 12,000원 |
|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 7,000원 |
|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 김수암 외 | |

| | | | |
|------|---------------------------------------------------------------------------------------------------------------------------------------------------------------------------|------------------------------|---------|
| 2014 |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 최진욱 편저 | 8,000원 |
| 2014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 전병근, 홍우택, 신종호 외 | 9,000원 |
| 2014 |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 북한인권연구센터 | 11,000원 |
| 2014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 9,500원 |
| 2014 | 2014년 통일에측시계 | 박영호, 김형기 | 9,500원 |
| 2014 |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 배정호 외 | 15,500원 |
| 2014 |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 Bae, Jung-Ho et al. | 18,000원 |
| 2014 |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 Kyuryoon Kim et al. | 19,000원 |
| 2014 |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 Kyuryoon Kim et al. | 15,500원 |
| 2014 |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 김규륜 외 | 4,500원 |
| 2014 |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중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 12,000원 |
| 2014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 조정아 외 | 7,000원 |
| 2014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 조정아 외 | 7,000원 |
| 2014 |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 허문영 외 | 12,000원 |
| 2014 |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 박중철 외 | 11,000원 |
| 2014 |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 손기웅 외 |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4-01 |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 임강택, 권태진 |
|---------|-------------------------------|----------|

■ Study Series ■

| | | |
|---------|-----------------------------------------------------------------------------------------------------------|-------------------------------|
| 2014-01 |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 Kim, Kyuroon et al. |
| 2014-02 |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 Bae, Jung-Ho et al. |
| 2014-03 |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 Cho, Jeong-ah et al. |
| 2014-04 |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Lee, Kihyun et al. |
| 2014-05 |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 2014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 이금순 외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 2015-01 |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 김갑식 외 | 9,000원 |
| 2015-02 |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 홍민 | 13,000원 |
| 2015-03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 조정아 외 | 13,500원 |
| 2015-04 |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 박종철 외 | 16,500원 |
| 2015-05 |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 현승수 외 | 8,000원 |
| 2015-06 |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 박영자 외 | 10,500원 |
| 2015-08 |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 한동호 외 | 6,500원 |
| 2015-09 |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 이기현 외 | 7,500원 |
| 2015-10 |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 박형중 외 | 16,500원 |
| 2015 |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 손기웅 외 | 10,500원 |
| 2015 | 2015년 통일에측시계 | 홍석훈 외 | 10,000원 |
| 2015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 김수암 외 | 15,500원 |
| 2015 |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 북한인권연구소 편 | 10,000원 |
| 2015 |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이규창 외 | 8,000원 |
| 2015 |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 김진하 외 | 9,000원 |
| 2015 |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 박종철 외 | 10,000원 |
| 2015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 김석진 외 | 8,000원 |
| 2015 |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 조한범 외 | 11,500원 |
| 2015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 조한범 외 | 14,000원 |
| 2015 |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 전병곤 외 | 10,000원 |
| 2015 | 김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 배종렬 외 |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5-01 |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 | | |
|---------|-----------------------------------------------------------------------------------------------------------|---------------------------------------------------|
| 2015-01 |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 Park, Young-Ho |
| 2015-02 |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 Kim, Suk-Jin |
| 2015-03 |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 Cho, Jeong-ah et al. |
| 2015-04 |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 2016-01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정성운 외 | 14,000원 |
|---------|-------------------------|-------|---------|

| | | | |
|---------|-------------------------------------------------------------------------------------------|----------|---------|
| 2016-02 |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이기태, 김두승 | 6,500원 |
| 2016-04 |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 정구연, 이기태 | 6,000원 |
| 2016-05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 오경섭, 이경화 | 8,000원 |
| 2016-06 |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이규창 | 8,000원 |
| 2016-07 |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주화 외 | 12,000원 |
| 2016-08 |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홍우택 외 | 7,000원 |
| 2016-09 |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 김석진, 홍제환 | 8,000원 |
| 2016-10 |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 박영자 외 | 13,000원 |
| 2016-11 |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한범 외 | 9,500원 |
| 2016-12 |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 임예준 외 | 8,500원 |
| 2016-13 |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 김진하 외 | 7,000원 |
| 2016-14 |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 조한범 외 | 7,000원 |
| 2016-15 |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도경욱 외 | |
| 2016-16 |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 이기현 외 | 8,000원 |
| 2016-17 |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 김수암 외 | 8,500원 |
| 2016-18 |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 김수암 외 | 15,000원 |
| 2016-19 |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 신중호 외 | 16,500원 |
| 2016-20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 12,000원 |
| 2016-21 | 2016년 통일에측시계 | 홍우택 외 | 7,000원 |
| 2016-22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 박종철 외 | 19,000원 |
| 2016-23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홍민 외 | 13,000원 |
| 2016-24 | 북한 전국 시장 정보 | 홍민 외 |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6-01 |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 정구연, 민태은 |
|---------|--------------------------------------|----------|

■ Study Series ■

| | | |
|---------|------------------------------------------------------------------------------------------------------------|--------------------------|
| 2016-01 |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 Park, Hyeong Jung et al. |
| 2016-02 |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 Lee, Ki-Hyun et al. |
| 2016-03 |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 Cho, Han-Bum et al. |
| 2016-04 |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 Kim, Jin-Ha |
| 2016-05 |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 6,000원 |
|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 8,000원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 10,000원 |

기타

| | |
|---------------------|---------|
| 2014 북핵일지 1955~2014 |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예측시계(Unification Clock) 운영개발(3/5년차)

2016년 통일예측시계

